# 소년단



조쏘 친선호

1958.8

# 미제 승냥이들은 당장 나가라!

만일 미제 승냥이 무리들이 우리 조국 남반부에 피 묻은 손을 뻗치지 않았더라면 우리 나라는 벌써 통일되였을 것이며 모든 남반부 인민들도 우리처럼 행복의 락원에서 살았을 것이다.

우리는 더는 참을 수 없다. 한 나라 한 형제인 그리운 남반부 인민들과 어린이들이 죽음의 땅에서 겪고 있는 이 비참한 형편을 어떻게 보고만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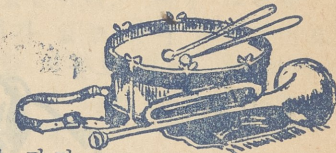
오늘 조선 인민들이 겪고 있는 이 가슴 아픈 불행은 오직 미제 승냥이 무리들이 우리 조국 남쪽 땅을 강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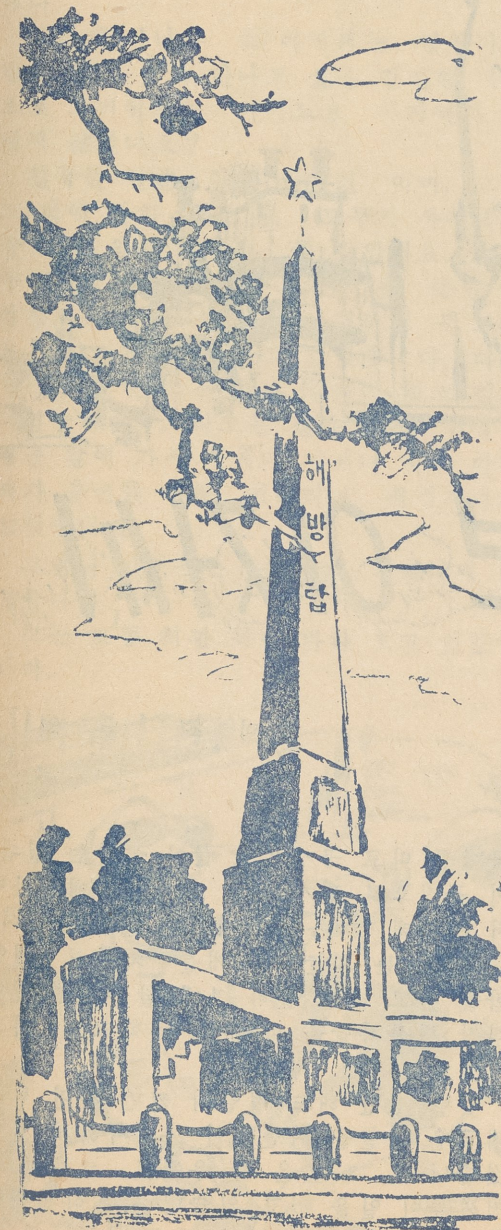
미제는 우리 땅에 남아 있을 아무런 리유도 있을 수 없다.

조선은 조선 사람의 것이다.

미제 침략 군대는 이 땅에서 당장 물러 가라!

네발 가진 짐승 미제 승냥이 무리들의 이 몸서리치는 만행을 보라! 오늘 피에 굶주린 이리떼처럼 날치고 있는 미제강도배들은 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 마다에서 남반부의 인민들과 어린이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다.

# 소년단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 1958년 8 호 내용

# 소년소설 이와노브 아저씨

글 남 응 손　　　　그림 최 은 석

정전이 되자 어느샌가 비료 공장은 말끔히 복구되여 전 보다 비료를 더 많이 만들어 내게 되였습니다.

흥남시에는 무너졌던 사택들이 말쑥하게 다시 서게 되고 새 사택들도 유정동, 호남동, 룡흥동 쪽으로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모른답니다.

그 중에서도 비료 공장 구내 북쪽 광장에 일어 서는 질안 직장은 장관입니다.

이것은 올'봄 일입니다.

아침 해'볕에 은'빛으로 번쩍거리는 커다란 공기 흡수관 (비료를 만들기 위하여 공기를 비료 공장으로 끌어 들이는 철관) 이 공장으로 길게 뻗어 내려 온 매봉산에서 진달래 꽃 바람이 시원히 불어 옵니다.

병일이는 오늘도 활개를 치면서 매일 밤을 자고 나면 몰라 보게 달라지는 질안 직장 립산화탑을 바라 보며 학교로 가고 있었습니다.

몇달 전만 해도 병일의 키만 하던 탑은 지금은 하늘을 찌를듯이 까마득하게 일어 섰습니다. 그 높은 탑 우에서 로동자 아저씨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저씨들은 마치도 허공에 떠서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참 아저씨들은 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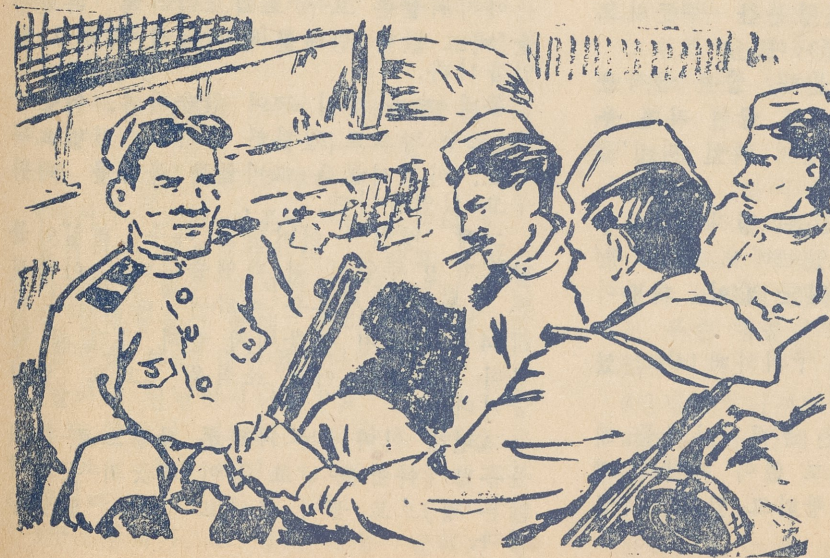
병일이는 중얼거리며 팔을 휘젔고 있었습니다.

이때 작업복을 입은 쏘련 기술자 아저씨들이 명랑한 걸음으로 질안 직장 건설장 정문으로 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진 병일이는 가던 길을 돌따서 아저씨들을 재빨리 따라 가 그 중 한 아저씨의 얼굴을 유심히 훑어 보았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그 아저씨는 병일이가 항상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이와노브 아저씨와 꼭 같지 않겠나요?

길쭉한 얼굴, 약간 벗어진 이마, 그리고 턱에 박힌 검은 김, 모두가 사진에서 늘 보고 있는 얼굴과 똑 같았어요. 그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한참 동안 건설장으로 들어 서는 그 아저씨의 뒤'모습을 물끄러미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병일이는 그전 보다 일찌기 학교 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질안 직장 건설장 정문 앞에 가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아저씨가 출근할 때를 기다리며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저씨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동 회관 쪽만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문 쪽에서 쏘련 아저씨들의 얘기 소리와 웃음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휙 돌아 보니 세 사람의 쏘련 아저씨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속에 그 아저씨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병일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아저씨 앞으로 맞받아 달려 나가 모자를 벗고 꿉벅 인사를 했습니다.

아저씨는 움찟 섰습니다.

《아저씨! 이와노브 아저씨가 아닌가요》

병일이는 히죽이 웃으며 아저씨를 쳐다 보았습니다.

《응 나 이와노브요. 그런데 학생은?》 라고 아저씨는 눈을 벌름 떴습니다.

병일이는 아저씨가 바로 이와노브라는 말에 너무도 격하여 눈'시울이 뜨끔해져 왔습니다.

《아저씨 저를 모르겠어요, 김 병일이얘요.》

《김 병일, 김 병일,》

하고 아저씨는 두세 번 외이며 잠시 매봉산 쪽을 바라 보며 지나 간 날의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안 나는 모양으로

《난 모르겠는데…》

하며 고개를 자꾸 저였습니다.

병일이는 안달아 났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집에서 가지고 온 사진을 홀쩍 꺼내 보였습니다.

아저씨가 보니 분명한 자기가 어린 아기를 안고 찍은 사진이였습니다.

아저씨는 잠시 다시 생각하더니

《오 북청서 살았지?》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오, 김 병일이, 야 컸구나, 이젠 학교에 다니는구만.》

아저씨는 큰 소리를 지르며 책가방을 멘 병일이를 홀쩍 들어 안는 것이였습니다.

《나를 용히 알아봤

군!》

아저씨 얼굴엔 웃음꽃이 함뿍 피여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언제 또 조선에 오셨어요?》

《나는 용접공이거든, 작년에 질안 직장 건설을 도우러 나왔지.》

하고 아저씨는 호탕스럽게 웃더니

《지금 어디서 사오.》

하고 묻는 것이였습니다.

《유정동에서 살아요.》

《유정동! 어떻게 여기에》

《왜놈들에게 끌리워 나갔던 아버지가 돌아 와서 흥남 공장으로 일하러 나오게 됐어요, 그래 이사했지요.》

《그럼 아버지도 돌아 왔구만, 어머니, 아버지 모두 건강한가?》

《어머니는 협동 조합에서 농사를 짓는데 건강해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전쟁 때 폭격 맞는 공장을 지키다가 돌아 가셨어요.》

병일이의 말은 흐리여 들었습니다.

《섭섭하오.》

하고 아저씨는 덤덤히 서 있었습니다.

병일이가 이와노브 아저씨를 그렇게 그리워하며 만나고 싶어한 것은 무슨 탓인가요.

× ×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 준 쏘련 군대가 신북청 정거장 거리에 당분간 주둔하고 있던 1945년 가을이였습니다.

북청 읍에서 오불꼬불한 좁은 골짝을 끼고 30리 가량 서북 쪽으로 들어 가면 우중충한 산으로 사방이 둘러 싸인 덕성'골이 있습니다.

논이라고는 손'바닥 같은 평지에 아주 적었고 밭이라고 좀 있었는데 그것도 산'등성이를 타고 부대를 일군 밭이 태반이였습니다.

병일이네는 이곳에서 구차하게 살고 있을 때입니다.

쏘련 군대 아저씨들은 우리 나라를 해방시키고는 숨 돌릴 짬도 없이 마지막 패잔병들을 매일 같이 소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우수수 락엽을 몰고 불어 오는 어느 날 저녁 쏘련 군대 아저씨들은 덕성'골 뒤'산에 숨어 있는 왜놈 군대 패잔병들을 보기 좋게 족치고 몇 놈을 포로해 가지고 돌아 가는 길에 마침 길'가에 있는 병일네 집 마당에서 쉬게 되였습니다.

아저씨들은 모두 으리으리하게 따발총을 메고 앉아 담배를 풀석풀석 피우고 있었습니다.

동네 꼬마 몇이 모여 왔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밭으로 일하러 나가고 없었으니까요. 아저씨들은 꼬마들을 목마를 태워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일이 어머니는 바루 병일이를 낳은지 2 주일이 된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왜놈들의 징용을 피하여 다니다가 이해 4월에 종시 놈들에게 끌려 나간 채 해방이 되였으나 아직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으로 해서 산후병 (아이를 낳고 몸이 깨끗치 못하여 앓는 병)으로 꼼짝 못하고 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은 하루하루 더 중해져서 미음도 변변히 못 마시고 밤낮으로 으흐흥 신음 소리를 내며 헛소리까지 치면서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 병일네 웃집 할머니가 와서 어머니의 병 시중을 들어 주었고 웃집 어머니가 일하는 틈을 타 가끔 와서 병일이에게 젖을 먹여 주었습니다. 그럴 때면 병일이는 웃집 어머니들의 젖을 맛있게 쭐쭐 빨았답니다.

그러나 병일이는 제대로 피여 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말라 갔으며 얼굴은 핼쑥하게 되여 아주 볼품이 없게 되였답니다.

방에서는 어린애 우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 울음 소리에 어머니의 신음 소리가 섞여 흘러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무슨 얘긴가 주고 받으면서 웃고 있던 아저씨들이 머리를 저으며 눈을 휘둥그렸습니다.

아저씨들은 모두 방 쪽을 향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얼굴들에는 저으기 불안스러운 기색이 떠 돌고 있었습니다.

애기 울음 소리와 어머니의 신음 소리는 멎지 않고 계속 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열이 몹시 오르는 어머니 이마에 수건으로 랭수 찜질을 한다, 애기를 달래준다 하며 바삐 서둘던 허리가 굽은 웃집 할머니가 방문을 황겁히 열고 나왔습니다.

병일이 어머니 병이 차도는 고사하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애서 건너 마을 의원을 데려 오려고 나선 것입니다.

할머니는 쏘련 군대들이 마당에 와 있는 것을 보자 움찟하면서 얼굴에 미안한 빛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일이 어머니 병 시중을 서두르다 나니 쏘련 군대 아저씨들이 마당에 온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아이구, 군대 어른들 수고합니다.》

할머니는 반색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도 웃저고리도 없이 바지가랑이가 너덜이 난 왜놈 군대놈들이 눈에 띄이자 밉살스러운 눈총을 쏘는 것이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하고 얼굴이 길죽하고 이마가 약간 벗어진 쏘련 군대 아저씨 한 분이 인사를 했습니다.

《수고합네다. 그 놈의 왜놈 군대가 뭘 어쩌겠다고 여적 배겨 있었담, 죽일 놈들 같으니!》하고 혀를 차면서 《좀 바빠서》 하고는 휑하니 행길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까 인사하던 군대 아저씨가 통역을 통해서

《이 집에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 서며

《저, 애기 어머니가 좀 앓는다우.》

《무슨 병입니까?》

《애기를 난지 두 주일이 됐는데 산후증이라우.》

《신음 소리를 들으니 대단한 것 같은데요.》

하고 그 아저씨는 깐깐히 물었습니다. 그 바람에 궂이 여러 말을 외국 사람들에게 하지 않으려던 할머니는 꺼리낌 없이 병 증세와 병일네 집 사정을 얘기한 다음

《메'돼지 열이 산후증엔 제일이라는기…》 중얼거리며

《고마운 어른들 천천히 쉬고들 가시우. 참 수고합네다.》

하고 건너 마을 쪽을 향하여 논'두렁 길을 바삐 걸어 나가는 것이였습니다.

그 쏘련 군대 아저씨들이 부대로 돌아간 그 이튿날 낮이였습니다.

병일이 어머니는 엊저녁부터 병이 더욱 심하여 입맛을 저차고 이제는 미음 한술도 못마시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맥없이 늘어져 있는 어머니는 신음 소리까지도 아주 가느러졌습니다.

그런데 난데 없는 찦차 한 대가 잉 하고 신작로로 달려 오더니 병일네 마당에서 우뚝 멎는 것이였습니다. 그 찦차에서는 쏘련 군대 아저씨 한 분이 조선 통역 아저씨와 함께 누런 메'돼지 한 마리를 맞들고 내리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는 퇴방으로 성큼 올라 서는 것입니다.

찦차 소리에 문을 열고 내다 보던 할머니는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얼떨떨히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쏘련 군대 아저씨는 쾌활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슈!》

할머니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동무가 이 집 아주머니 병을 걱정하고 온아침에 산에 가서 메'돼지를 잡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통역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아이구 이런 고마울데가…》

하고 말끝을 흐리는 할머니는 너무 어이 차서 눈'시울이 붉어져 왔습니다.

《어서 들어 오슈! 얼마나 수고했겠수!》

할머니는 이것저것 지저분하게 널린 방을 부리나게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 쏘련 군대 아저씨는 엊저녁에 병일네 마당에서 쉬면서 할머니에게 친절히 물어보던 그 아저씨였던 것입니다.

병일이 어머니가 몹시 앓는다는 것을 알고 부대로 돌아 간 아저씨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다싶이 하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 메'돼지를 잡으려 산으로 올라 갔던 것입니다.

부대의 군의 아저씨들도 있었지만 조선 사람들의 풍습을 존중히 생각하고 메'돼지를 잡아 왔던 것입니다.

이어 쏘련 군대 아저씨는 통역 아저씨와 함께 방으로 들어 갔습니다.

병일이 어머니는 눈'동자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산'돼지를 잡아 왔으니 어서 열을 잡수시고 병을 고치십시오. 생명은 귀중합니다. 오래 살아 해방된 자기 나라에서 행복하셔야지요》

하고 아저씨는 병일이 어머니를 보고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쩐 일인지 모르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애기 엄마! 쏘련 군대 어른이 글쎄 약에 쓰라구 메'돼지를 잡아 왔수다!》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때야 정신이 좀 들었는지

《고맙습니다.》

하고 자리에 누운 채 가래 섞인 모기소리 같은 말을 가까스로 하는 어머니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루룩 귀 밑으로 흘렀습니다.

아저씨는 어머니 병이 어서 나아야 어린 애기도 잘 자란다고 하면서 벙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쏘련 군대 아저씨가 잡아다 준 메'돼지 열을 약으로 먹고 병이 낫게 되였고 몸도 회복되였던 것입니다.

병일이도 젖이 모자라 우는 일이 별로 없이 방실방실 웃으며 복스럽게 자라게 되였답니다.

그 아저씨가 바로 이와노브 아저씨였는데 아저씨는 동네를 지나칠 때면 꼭 병일네 집에 들려 해죽거리는 병일이를 안고 얼려주기도 하면서 반가워 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 이와노브 아저씨는 동무와 함께 와서 병일이를 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번에 그 사진 한 장을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아주머니 건강하고 병일이를 잘 키우시오.》.

하고 부대로 돌아 갔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후 이와노브 아저씨의 소식을 모르다가 1948년 겨울에 고향인 모쓰크바로 돌아 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 다음은 통 소식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일이는 이제는 중학교 1 학년생입니다. 그는 공부를 하다가도 이와노브 아저씨와 찍은 사진을 들여다 보고는 히죽히 만족한 웃음을 웃었습니다. 때로는 동무들 앞에서 사진을 내여 놓고 자랑도 했던 것입니다.

이와노브 아저씨의 덕으로 어머니도 살아 났고 자기도 이렇게 클 수 있었다는 생각과 또 위대한 쏘련 군대 아저씨의 품에 안겨 갓난 애기쩍이나마 같이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그를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 그는 사진을 볼 쩍마다 이와노브 아저씨를 한 번 만나 볼 수가 없을가? 하고 항상 머리 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쏘련 아저씨들을 거리에서 만날 때마다 혹 이와노브 아저씨가 아닐가 하고 누구나 유심히 보았으며 그저 지나친 때는 한 번도 없였답니다.

× ×

다음 날 아침 어머니와 병일이는 질안 직장 조업식을 하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와노브 아저씨는 주석단 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섭섭하게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물밀듯 모인 사람들의 뒤에서 그저 멀리 아저씨의 얼굴을 바라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와노브 아저씨가 뵈우?》

병일이는 껑충거리며 어머니 얼굴을 바라 보았습니다.

《오냐 보인다. 똑똑히 환하게 보인다. 참 고마운 분이다.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 주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 주고 또 공장 세우는 일까지 도와 주다니…》

하고 말하는 어머니의 두 눈에는 눈물이 핑 돌고 있었습니다.

이날 저녁 병일이는 정성드린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어머니는 구차한 살림에도 소중히 간직해 오던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은가락지를 종이에 싸 들고 이와노브 아저씨 댁을 즐겁게 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1958.6.20—

## 잠'버릇을 보는 법

형—얘, 태길아 내가 잘 때 입을 벌리고 잔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아우—거야 거울을 보면 똑똑히 알게 아니야?

리마를 아십니까? 이것은 단숨에 천리를 달린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지요.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구요? 지금 우리 나라는 천리마를 타고 앞으로 앞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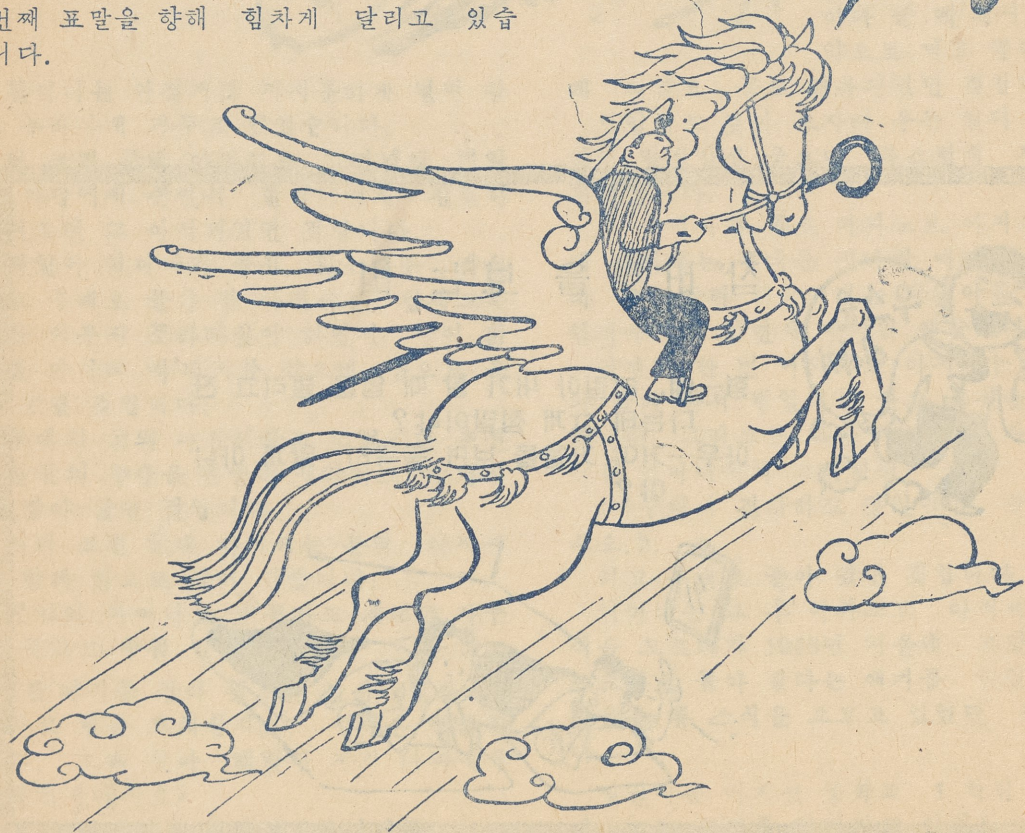
로동당이 펼쳐 놓은 빛나는 앞길로 우리 나라는 천리마처럼 쉼 없이 달려 가고 있습니다.

로동당이 가리키는 곳— 그곳은 행복이 꽃피여나는 사회주의 꽃동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천리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지난 6월에 최고 인민 회의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인 5개년 계획을 법령으로 채택하였습니다.

5개년 계획— 이것은 천리마를 타고 내닫는 우리들의 행복의 도표이며 사회주의 꽃동산을 건설하여 나아 가는 근로자 아저씨들의 빛나는 표말입니다.

천리마는 이미 첫번째 표말을 지나 두번째 표말을 향해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번째의 표말을 다 지나면 우리 인민들은 옛날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보다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꽃피는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5개년 계획이 완수되면 우리 나라는 튼튼한 공업—농업 국가로 발전되게 될 것이며 우리 인민들의 입는 옷, 먹는 음식, 사는 집들이 아주 좋아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먼저 중공업을 발전시키면서 이와 함께 우리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입고, 쓰고 하는 물건들을 만드는 경공업과 먹는 문제를 해결하며 공업의 원료를 대 주는 농업을 같이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때나 인민들이 더 잘 살도록, 더 행복해 지도록 배려를 베풀어 주는 조선 로동당이 내 세운 훌륭한 정책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근로자 아저씨들은 로동당의 이 훌륭한 정책을 받들고 5개년 계획도 반드시 앞당겨 해 내리라는 굳은 결심과 불타는 애국심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꽃 튀는 건설을 다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5개년 계획 마지막 한해 동안에는 우리 나라의 공업은 전쟁 후 3개년 계획 기간에 생산된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공업 제품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의 농업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기계로써 농사를 짓게 되여 5개년 계획 말에 가서 우리 나라는 인민들이 먹고도 남을 여유 있는 나라로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1961년에 가서 70만 톤의 선철, 1천만 톤의 석탄, 97억 키로와트시의 전력, 63만 톤의 화학 비료, 2백만 톤의 쎄멘트, 인구 한 사람 앞에 20 메터의 천, 376만 톤의 알곡, 3만 톤의 목화와 7만 톤의 아마, 20만 톤 이상의 고기와 65만 톤의 물'고기를 생산하게 될 것이며 이 기간 내에 도시에 30만 동 이상, 농촌에 20만 동 이상의 훌륭한 문화 주택도 건설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발전된 나라를 따라 잡으며 그러한 수준에 점차 올라 서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며 우리 나라의 중공업의 발전은 우리 인민들을 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5개년 계획 기간에 농촌에서는 완전히 협동화를 끝내고 일부 남아 있는 개인 상공업을 개조하여 우리 나라에서 착취하는 뿌리를 완전히 뽑아 버리게 됩니다.

더우기 우리를 한없이 기쁘게 하여 주는 것은 이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소년들이 초급 중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공부하도록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는 그것입니다.

이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 나라에서 중등 의무 교육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아세아나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되는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에는 또한 사회주의 사회의 참되고 아름다운 도덕이 이루워질 것이며 모든 근로자들은 훌륭한 기술을 가지게 되며 사회주의 문화는 더욱 찬란히 꽃피여 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먼 앞날의 일이 아닙니다. 이 빛나는 설계도는 지금 활짝 펼쳐지고 있으며 실현되고 있습니다.

로동당의 주위에 굳게 뭉쳐 래일의 찬란한 희망을 안은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은 지금 당의 부름에 따라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를 향하여 달려 나아 가고 있습니다.

리들도 달리는 천리마에 떨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더욱 꾸준히, 더욱 완강히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자!

그리하여 우리도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빛나는 언덕을 향해 달려 나아 가는 투사로 되자!

글 맹 정 원

지난 6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친 보천보 전투 승리 21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한 기자는 여러 가지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 중에서도 공화국 각지에서 모여 온 숫한 소년단원들의 가슴을 울린 아름답고도 슬기로운 이야기 몇 가지를 추려 여기에 소개한다.

### ☆ 가림천'가의 동상 앞에서

이른 아침부터 곤장덕과 가림천'가, 김 일성 원수의 동상 앞에는 숫한 사람들로 물'결 치고 있었다.

소년단원들은 유서 깊은 곤장덕에서 보천보 전투 참가자의 한 사람인 천 봉순 선생의 보천보 전투 이야기를 들었다.

《이 바위'돌이 바로 김 일성 원수님께서 지도를 펴시고 보천보 전투 계획을 세운 곳입니다. 여기서 원수님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전투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맨 먼저 저 대진평과 혜산으로 통하는 전화선을 끊어버리고 백양나무 밑에서 신호탄이 오르기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여 총공격을 알리는 신호탄이 밤 하늘에 올랐습니다. 보천보는 삽시간에 총 소리로 들볶았고 사방에서는 하늘을 태울듯한 삼 단 같은 불'기둥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보천보를 습격한 우리들이 왜놈 주재소와 면 사무소, 산림 보호구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거리와 골목마다에서는 감격에 넘치는 늙은이, 젊은이, 아이들의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 일성 장군님이 오셨소〉

〈우리의 유격대들이 왔소〉, 〈만세! 만세!〉 〈김 일성 장군 만세!〉 군중들은 유격대원들을 얼싸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군중들은 물밀드시 거리로 거리로 몰려 들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김 일성 원수님은 군중들을 향해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며 왜놈들은 머지 않아 멸망한다는 것과 머지 않아 조국 광복의 날이 온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의 연설은 불행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조선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신심을 북돋우어 주었고 다가오는 빛나는 래일을 바라 보게 하였습니다》 천 봉순 선생의 말씀은 끝났다.

그러나 소년단원들은 움직이지 않고 동상 앞에 오래오래 서 있었다. 그들은 지금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다.

### ☆ 조선의 어머니

어둠이 깃들었다.

곤장덕과 가림천'가에 20 여 개의 우둥'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소년단원들은 우둥'불마다에 둘러 앉아 항일 투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가림천'가에서는 《조선의 어머니》 렴 보배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였다.

소년단원들은 마음을 조여 가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렴 보배 할머니는 8남매를 데리고 동북 장백현 얼두강 기슭에서 살았다. 남편은 항일 유격대에 식량과 신발, 기타 쟁기를 대주는 책임을 지고 일하셨고 할머니는 물레방아를 놓고 쌀을 찧여 남편이 하는 일을 도왔다. 그리고 맏아들 종근이는 김 일성 원수님을 따라 유격대에서 싸웠다. 많은 아이들을 거느린 할머니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남편의 일을 힘써 도왔다. 그러던 어느 해 아들이 떠난지 두 달만에 왜놈들은 할머니네 온 식구를 몽땅 잡아 갔다. 놈들은 유격대의 비밀을 알아 내려고 아이들에게는 사탕알을 주며 얼려 보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가진 고문을 다하였다. 사정 없는 놈들의 고문은 시시각각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생명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한 이들은 조국을 위해 싸우는 유격대의 비밀을 끝끝내 지켜냈다.

◇ 렴 보배 할머니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소년들 ◇

불행은 엎친데 덮치였다. 유격대원인 맏아들 종근이가 적정 정찰 임무를 맡고 나왔다가 반역자 차 선달의 밀고로 불행히도 왜경에게 포위되여 용감히 전사했던 것이다.

흰 눈이 펄펄 내리는 날 밤 할머니는 낯모를 어느 산마루에서 눈 우에 쓰러진 사랑하는 아들을 끌어 안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종근아 아직 네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왜 이 눈 우에 누웠느냐》

할머니는 안타까이 아들을 불렀으나 종근이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할머니 앞에는 새로운 불행이 꼬리를 물고 달려 들었다. 아들을 언 땅에 묻은지 아홉달 후인 어느 날 경찰서에서 나온 남편이 또 세상을 떠난 것이다.

할머니는 앞길이 캄캄하였다. 그러나 할머니는 락심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오직 머지 않아 보게 될 해방된 조국을 그려 보며 유격대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굳세게 살았다. 할머니는 둘째 아들 강 철이를 또 다시 유격대에 보내고 품팔이와 삯빨래로 6남매를 길렀다.

그러면서도 할머니는 유격대를 돕는 일을 잊지 않았다.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내 집엘 아마 대여섯 번은 들리셨단다. 그때마다 나는 새 희망과 용기를 얻군 했다. 그리고 이 보천보 전투에서 승리한 소식, 김 일성 원수님의 이르는 곳 마다에서 울린 승리의 만세 소리는 나의 용기를 천배 만배로 돋구어 주군 했었지!》

흰 눈이 뒤덮인 산마루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시체를 안고도 눈물을 모르셨다는 할머니,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둘째

아들마저 복쑤의 싸움터에 내 보내기를 서슴치 않은 이 할머니의 눈'가에는 어느덧 이슬이 맺혔다.

《너희들은 정말 행복하다. 이게 다 원수님이 나라를 찾아 주셨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열심히 배우고 원수님의 애국심을 이어 받아 조국을 위해 싸우는 훌륭한 애국자들이 되여라》

할머니의 힘 있는 말씀은 한 마디 한 마디 소년단원들의 가슴마다에 스며 들었다.

밤은 깊어 가건만 우둥'불은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 ☆ 그 이름 길이 전하자

《김 일성 원수의 혁명 활동을 배우며 본받자》 라는 량강도 내 소년 단원들의 모임이 있었다. 아마 소년단원들은 이 모임을 언제나 감격과 흥분 속에 회상할 것이다. 보천 제 9 중 학교 대 신 철만 동무는 허 상만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 이야기는 모임에 참가한 소년단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허 상만 소년은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의 지도 하에 활동한 반일 소년회원이였다. 그는 13 세 때부터 박 금철 선생이 지도하는 《야학》에 다니면서 일본놈은 원쑤라는 것과 그를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다른 20 여 명의 반일 소년 회원들과 함께 중국 장백현 일대와 국내는 량강도 여러 곳을 다니며 비밀 편지 련락, 보초, 적정 정찰 등으로 진정한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반일 운동을 도왔다. 그러다가 1938년 음력 1월 14일 새벽 그는 불행히도 왜놈 경찰에게 체포되였다. 어리석은 왜놈 경찰들은 이 어린 소년을 통하여 반일 운동의 비밀을 쉬이 알아 낼 수 있으리라고만 생각하였다. 놈들은 처음에는 상만 소년을 얼려 대며 심문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였다. 상만이가 끝내 입을 다물자 놈들은 모진 고문을 가하였다. 코'구멍에 물을 붓고 때리고, 쑤시고, 지지고… 이렇게 별의별고문을 다했으나 상만 소년의 입에서는 한 마디의 비명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수십 차례의 고문을 겪고 난 상만 소년은 거의 정신을 잃게 되였고 생명이 위급하여졌다. 그러자 고문에 지친 왜놈들은 《선심》을 쓰는 것처럼 다 죽게 된 상만 소년을 집으로 내 보냈다. 다시 회복시켜서 고문을 들이 대기 위한 배'심이였다.

그의 부모들은 《죽지 말고 살아 나기만 하렴… 놈들이 멸망하는 걸 봐야지!》하며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 보려고 가진 간호를 다 했으나 그는 마침내 원한에 찬 눈을 감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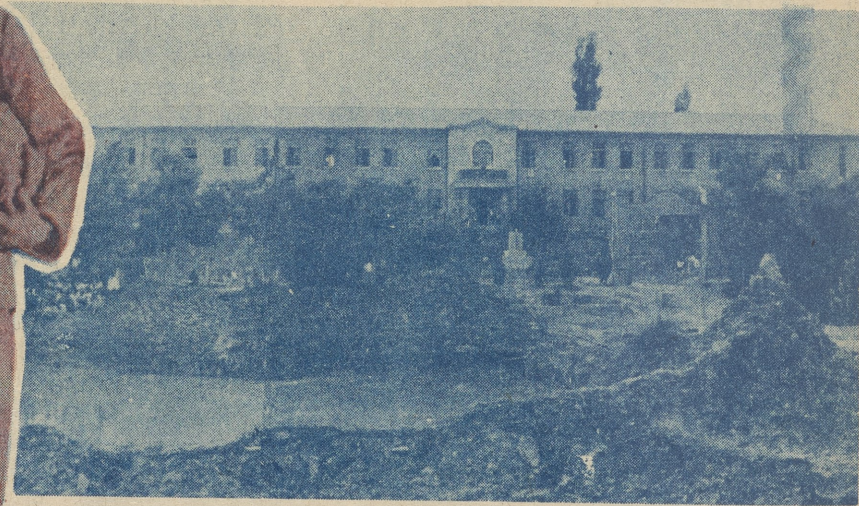
그는 죽는 순간 두 부모와 형님에게 다음과 같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

《아버지! 어머니! 전 아무래도 견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죽었다고 조금도 슬퍼 마세요… 저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죽어요…나는 죽…지만 나의 〈야학방〉동무들이 싸워 줄… 김 일성 장군이 꼭 나라를…찾아 준대요…》 면 앞날을 그리듯 바라 보는 그의 맑은 두 눈에는 자기가 해 놓은 일에 대한 자랑과 기쁨이 어려 있었다. 해방된 조국에 휘날리는 승리의 기'발을 바라 보는 듯…

그는 다시 마지막 힘을 가다듬고 형님 (반일 청년회원이였는데 왜경에게 고문을 받아 벙어리가 되여 나와 앓고 있었음)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였다. 《형님 저는 죽드라도 형님은 꼭 살아서 원쑤를 갚아 주세요. 조선이 해방되는 날 그 놈의 〈최 경부〉놈부터… 개놈들에게 그저 불…벼락…을…》

상만 소년은 이러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짧은 일생을 마치였다.

어머니는 치마폭에 얼굴을 파묻고 가슴이 미여지는 듯 흐느껴 우시였다. 아버지도 형님도 울었다.

허 상만 소년은 갔다. 그러나 허 상만 소년의 이 불타는 애국심과 굴할 줄 모르는 투지는 오늘 공화국 소년들의 심장 속에 맥맥히 살아 있으며 그의 이름은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 슬기로운 혁명 전통을 배운다

수상님의 어린 시절 동상과 학교 앞에 만들어 놓은 백두산 천지 모형

평남 대동군 창덕 중학교
교장 도 석 우

우리 학교는 김 일성 수상님께서 어린 시절에 공부하신 모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소년 단원들이 살고 있는 칠골은 김 일성 수상님의 생가가 있는 마을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학교에서 배우며 자라는 우리 학교 소년 단원들은 항상 수상님의 어린 시절을 본받으며 수상님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자가 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소년 단원들은 일찍부터 김 일성 수상님의 혁명 활동 연구실을 꾸리고 수상님의 슬기로운 어린 시절의 생활과 불타는 혁명 정신을 배우기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우리 학교 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 일성 원수의 혁명 활동 연구실 사업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 새로운 출발

지난 날 우리 학교는 김 일성 원수의 혁명 활동 연구실을 꾸려 나가는데 부족되는 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상님의 가정 환경, 유년 시기, 혁명 활동 시기,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전후 복구 건설 시기 등 수상님이 활동하신 이 모든 사실들을 순서 없이 연구해 온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실을 꾸리는 데도 이러 저러한 사진을 많이 붙여 놓는 데 만족했고 기타 혁명 투사들과의 이야기 모임, 우둥'불 모임에서도 계획없이 모임들을 조직하여 왔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좋은 일이나 그러나 한 해 동안 연구실 사업을 총화해 놓고 볼 때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가 하는 것은 뚜렷하지 못했습니다. 연구 사업에 참가한 소년 단원들도 일은 많이 했는데 뚜렷하게 머리에 남아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곧 이러한 부족점들을 고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우리는 우선 김 일성

원수의 혁명 활동 연구실에서 꼭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며 그 중심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가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연구실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수상님의 유년 시절부터 중학교를 졸업하실 때까지의 학창 시절과 혁명 활동을 개시하시던 때까지, 혁명 활동 개시로부터 항일 무장 투쟁 시기까지 이렇게 세 계단으로 나누어 연구실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였습니다.

### ☆ 새로 꾸린 연구실

지난 날 산만하였던 원인은 주로 연구실 사업의 중심이 뚜렷하지 못했기 때문이였습니다. 때문에 새로 꾸리는 연구실은 연구 사업의 중심 방향에 의하여 꾸리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연구실 사진 배렬부터 달리 하는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숫한 사진이 순서 없이 걸려 있던 것을 정리하고 연구 사업의 중심 방향에 의하여 사진 배렬을 순서 있게 고치였습니다.

즉 수상님의 가정 환경에 대한 사진으로부터 유년 시기, 학창 시기, 혁명 활동 개시, 혁명 활동의 시기까지를 정연하게 배렬하였습니다.

또한 스크래프도 이것 저것 잡다하게 있던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스크래프는 《어린 시절》(김 일성 수상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자료), 《귀하신 말씀》(수상님이 어린이들에게 주신 말씀), 《학생 작품집》(소년단원들이 크루쇼크 활동을 통하여 수상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료로 창작한 작품), 《자료집》(자기들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얻은 자료), 《행복한 어린이》(현재 공화국 소년들의 행복한 생활 모습), 《감상록》(외부 학교 소년들이 연구실을 방문하고 기록한 감상문), 《친선》(외부 학교 소년들과 경험을 교환한 편지) 등 20 여 종의 스크래프들이 있습니다.

### ☆ 활기를 띠여가는 연구실

오늘 우리 학교 김 일성 원수의 혁명 활동 연구실은 활기를 띠여가고 있습니다.

매일과 같이 연구실에는 인민반 1학년에서 초중 3학년 학생들로 흥성거리고 있습니다.

소년 단원들은 연구실에서 자기들의 일상 생활을 수상님의 어린 시절의 생활과 대비하여 연구하며 수상님의 열렬하고도 슬기로운 애국심을 본받기 위하여 배우는 훌륭한 교양실로 되여 있습니다.

상급 학년 크루쇼크원들은 인민반 어린 학생들을 연구실에 데리고 들어 와 수상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 주며 스크래프도 보여 주고 사진 내용도 해설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연구실에서 스크래프를 정리하고 있는 소년들 ◇

또한 수상님의 어린 시절의 생활을 본받기 위한 분단 모임도 여기서 가지며 교과서에서 수상님에 대한 제목을 학습할 때는 연구실에서 학습 준비도 합니다.

각 분단이나 조에서는 답사, 방문, 이야기 모임, 혁명 투사와의 상봉에서 얻어진 자료를 정리하였다가 명절날이나 수상님의 혁명 투쟁 시기의 기념일에 모임들을 가지고 그를 발표합니다.



크루쇼크원들은 1개월에 2회 이상 연구실에 모여 자기 분조에서 활동한 사업을 보고하며 새로운 자료들과 외부 학교에서 온 편지들을 스크래프에 정리합니다. 한편 크루쇼크원들은 수상님이 투쟁하신 보천보 지방을 비롯한 다른 학교 소년단 단체와의 서신 련락도 조직하여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는 사업도 합니다.

크루쇼크원들은 1개월에 1회씩 모임을 열고 전체 학교의 연구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우리 학교 연구실은 실지 소년단원들의 교양실로 훌륭히 리용되고 있습니다.

크루쇼크 사업을 새로 시작한지 얼마 후에 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을 돌아 보다 연구실에 들어 가게 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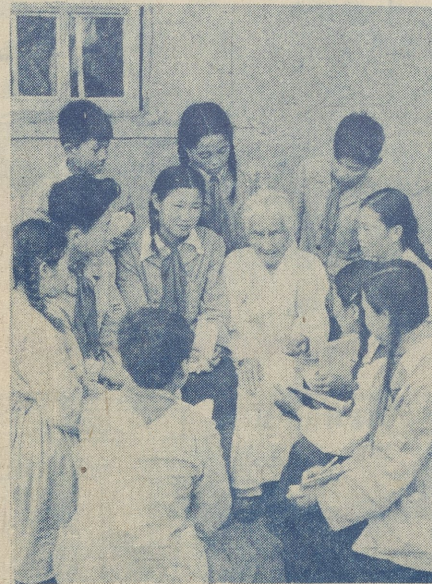
◇ 수상님의 삼촌 어머니를 모시고 ◇

그때 제 2 분단 열성자들이 책상에 둘러 앉아 숙제도 잘 하지 않고 규률을 문란히 하는 라 재홍 동무를 타이르고 있었습니다. 《수상님은 학교에 다니실 때 꼭 숙제를 하고야 다른 일을 하시지 않았니…너두 수상님의 삼촌 어머니를 방문했을 때 듣지 않았니? 수상님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웃사람을 존경했고 동무들끼리 서로 화목했는가 생각해 봐라. 더구나 수상님의 모교에서 배우는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니…》 하고 열성자들은 재홍이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재홍이는 벽에 걸린 수상님의 학교 시절의 사진을 말 없이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재홍이는 그 후 자기의 잘못을 훌륭히 고쳤습니다.

### ☆ 참되고 아름다운 품성

지난 봄날 우리 학교 4분단 동무들은 수상님의 생가 앞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생가를 구경하시려 들어 오셨습니다. 4분단 동무들은 이때 할머니를 친절히 안내하면서 생가에 대한 이야기, 수상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경을 다 하시고 가시는 할머니의 보따리를 들어다 드리면서 행길에까지 바래드렸습니다.

이때 할머니는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구경 오신 분이면 이 학생들더러 이야기를 들려 달래시우. 수상님에 대해서 모르는 말이 없쉐다. 그리구 이 늙은이에게 얼마나 고맙게 구는지 아이들두 참 기특하웨다…》 하고 기뻐하시며 말씀하시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힘든 일을 자기가 먼저 하려고 하는 6분단 손 영애, 박 승희, 서 옥순 동무들과 같은 동무들도 많아졌으며 학교와 마을을 자기 집처럼 깨끗이 청소하며 수상님의 생가를 새벽마다 나가 청소하는 5 분단 6 반 동무들 같은 모범적인 사실도 어느 분단에나 다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웃사람을 존경하고 마을과 학교를 사랑하며 힘든 일을 남보다 먼저 하려는 아름다운 품성은 우리 수상님이 어린 때 가지고 계셨던 품성입니다.

때문에 나는 이런 미풍들이 나날이 늘어가는 것은 우리들이 수상님을 따르며 배우는 데서 오는 결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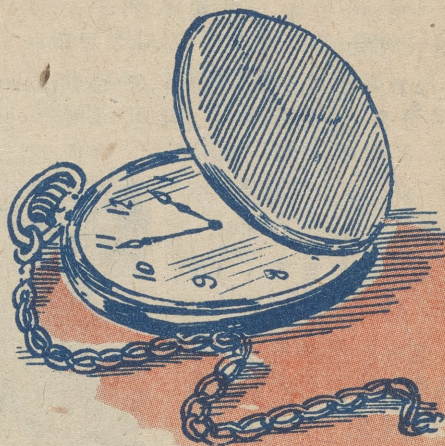
—시 2 편—

## 시계의 말

김 순 석

잘깍잘깍
레닌이 쓰시던 시계 하나
지금도 돌아 가며 이야기하네
——밤 마다 레닌께 난 말하였지요.
　주무세요 주무세요 시간이 됐어요.
——아침에 저녁에 난 말하였지요
　쉬세요 좀 쉬시고 일을 하세요.

잘깍잘깍
레닌이 쓰시던 시계 하나
레닌이 하시던 말씀 이야기 하네
——한 번 가면 오지 않는다 귀한 시간은
　할 일 많은데 어찌 쉬겠니?
——게으른 사람은 시간을 쫓아 간다.

## 조선의 기'발

강물이면 이리도 넓을가요.
바다이면 이리도 설레일가요.
색색 노래가 땅을 흔들고
색색 기'발이 하늘을 덮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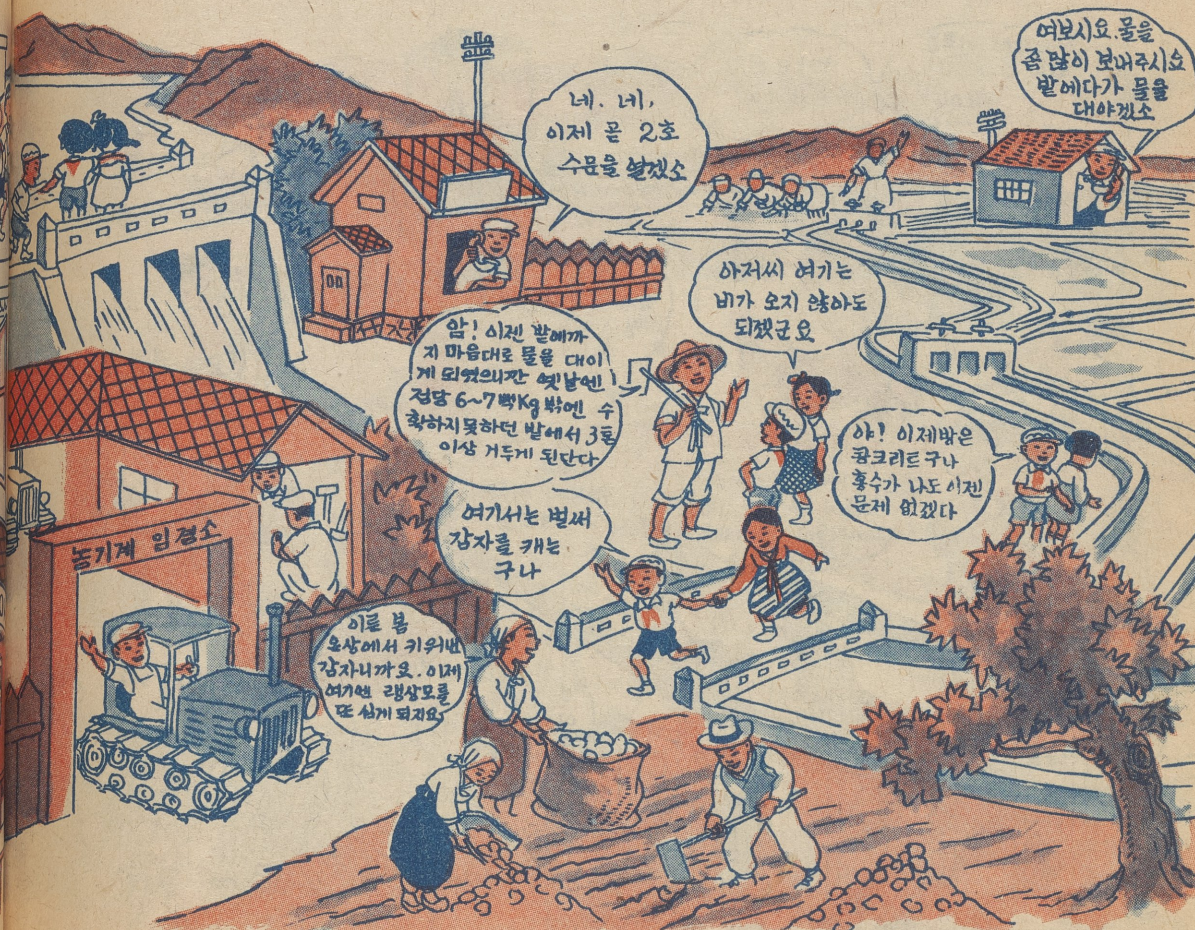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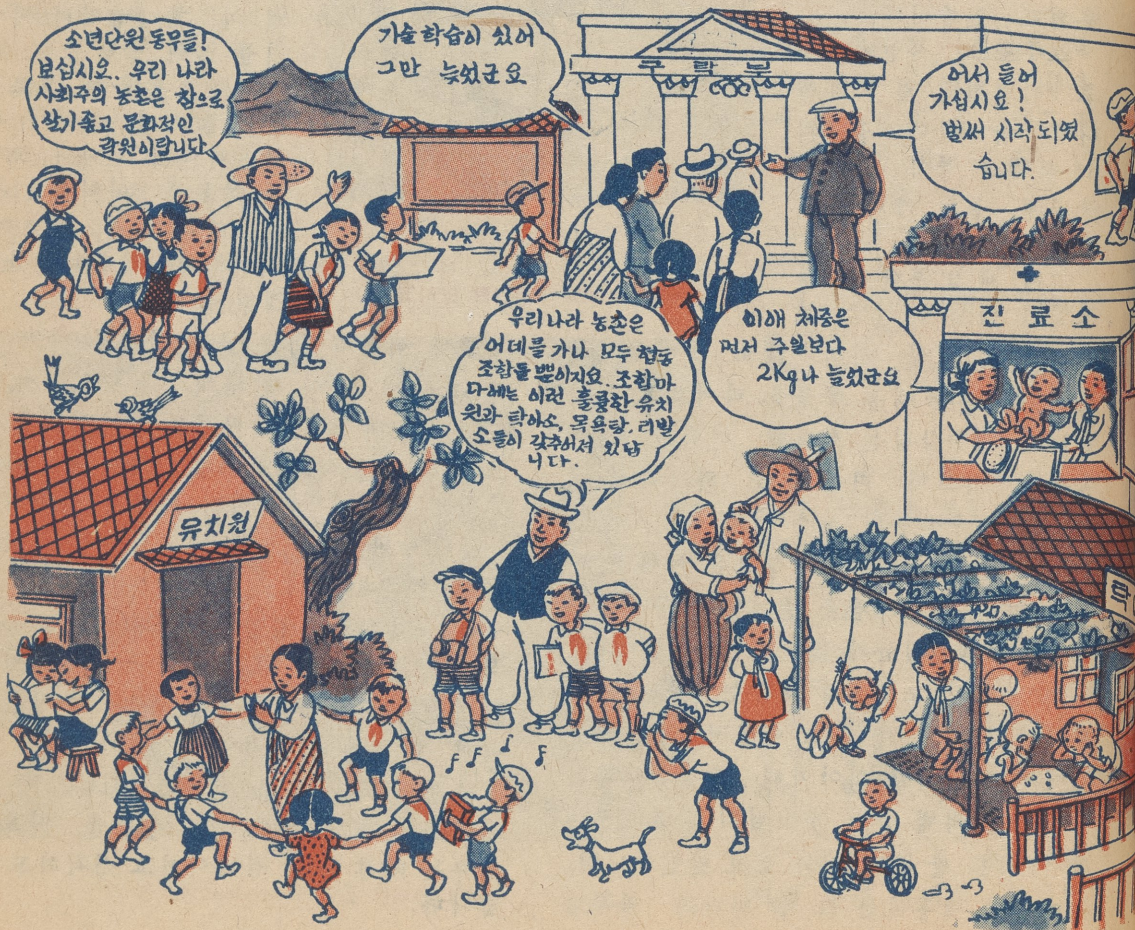
그 속에 내가 본 기'발 기'발
아저씨 가슴을 뜨겁게 한 기'발
공화국의 기'발이 바람에 날리오
수상님의 초상이 높이 지나 가요.

바다로 흐르는 강물과 같이
친선의 한 가정이 뭉친 대렬에
조선은 얼마나 위대하였던가요.
조선은 얼마나 자랑스러웠던가요.

아! 세계의 온 나라와
어깨 겯고 나가는
조선 나라 위대한 나라
래일을 떠 메고 우리는 자라오.

—쏘련 방문 소년 시편 중에서—

## 사회주의 락원에서 우리는 살게 된다

(제一차 五개년 계획 농업 부문 전망)

(전호의 계속)

**문 일본 뇌염이란 어떤 병입니까?**

**답** 이 병은 《잠자는 병》 혹은 《풍》이라고도 하는 병인데 15 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잘 걸리며 죽는 률이 높은 무서운 전염병이다.

**문 이 병은 어떻게 전염되며 어떻게 앓는 병입니까?**

**답** 이 병은 환자의 피를 빨아 먹은 모기가 건강한 사람을 물 때 모기의 침을 통하여 균이 사람의 몸에 들어 가 병을 일으킨다.

이 병에 걸리면 보통 10~15 일이 지나서부터 앓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갑자기 열이 나고 두통이 나면서 까무라치기도 한다. 그 후 2~3 일이 지나면 환자는 벌써 목이 꿋꿋해져서 앞으로 숙이지 못하며 정신을 잃고 완전히 잠자듯 하나 온몸은 차차 꽛꽛해지고 눈이 이상하게 된다. 이 밖에 여러 가지 증상들도 나타나는데 흔히 4~5 일만에 죽는 수가 많다.

이 병은 초기에 손을 쓰지 못하면 고치기 어려우며 특히 환자의 년령이 어릴수록 더욱 위험하다.

**문 이 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그것은 무엇보다도 모기를 철저히 잡아 내고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기를 잡아 내는 데는 파리 약, 파리채 등을 리용하는 것이 좋으며 밤마다 모기'불을 피우고 모기가 방 안에 들어 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자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기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항상 주위를 깨끗이 해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집 근처에 있는 물구뎅이들을 철저히 메워 없애고 필요 없는 빈 독들은 모기가 들어 가 있지 못하도록 엎어 놓아야 하며 도랑창에는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자주 청소해야 한다.

**문 마라리아는 어떻게 전염되며 어떻게 앓게 됩니까?**

**답** 마라리아도 일본 뇌염과 같이 환자의 피를 빨아 먹은 모기에 의하여 전파된다.

마라리아에 걸리면 처음엔 아슬아슬 추워 나다가 차차 몹시 떨리고 갑자기 열이 39~40 도까지 오른다. 이렇게 몸이 떨리기 시작하여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 보통 5~8 시간 계속되다가 나중에 땀을 흘리면서 열이 내린다.

그 다음 날에는 아무 일 없이 지내고 하루 건너서 같은 시간에 또 다시 앓기 시작하는 것이 보통 례이다.

그러나 마라리아에는 매일 앓는 것 (24 시간 열), 이틀 건너 앓는 것 (72 시간 열) 등이 있다.

**문 마라리아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답** 이 병도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여름 한철 마라리아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약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환자는 속히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 깨끗하고 명랑하게

남포 제4중 학교 대에서

사진 리 종록 촬영

단정한 옷차림에 《위생 선전대》라는 완장을 왼팔에 두른 이곳 소년단원들은 위생 문화 사업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위생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관하여》에 대한 내각 결정 52호를 받들고 한사람 같이 나선 이들의 활동은 마을과 거리에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고 있다.

## 위생 모범 거울

위생 문화 사업에서 제일 모범을 보인 4분단에서는 위생 모범 거울을 표창받았다. 분단 동무들은 위생 모범 거울을 벽에 걸면서 앞으로도 계속 위생 문화 사업에 열성을 다할 것을 마음 다진다.

## 귀담아 듣는다

위생 문화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생 과학 지식을 알아야 한다. 1주일에 한 번씩 위생 강연회를 가지는 외에도 위생 크루쇼크원들과 위생 초소장들은 방역소 소장 선생님을 모시고 위생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 꼬마 위생 선전대

우리의 꼬마 위생 선전대들은 마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위생 문화 사업에 대하여 친절히 해설해 드리며 애국 렬사 가족들과 인민군 후방 가족들의 집을 찾아서는 도배를 해 드리며 일광 소독도 해 드린다.

3분단의 주 순자, 리 옥자 동무는 소년호 렬차에 탄 손님들에게 위생 선전을 하고 있다.

## 누구 손이 곱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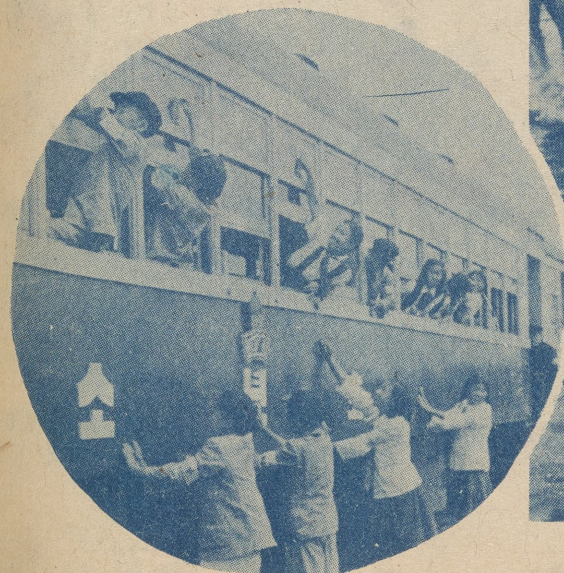
《누구 손이 제일 곱나 내기 할가?》 놀다가도 이들은 이따금 서로서로 검열해 보군 한다.

## 랭수 마찰

아침마다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조기 체조가 끝나면 랭수 마찰이 시작된다. 랭수 마찰은 이들의 몸을 튼튼하게 단련시키고 있다.

## 우리들의 기차는 우리 손으로

《뿡》 기적을 울리며 소년호 렬차가 정거장에 와 닿는다. 공부가 끝나기 바쁘게 소년단원들은 걸레를 들고 내 달린다. 순식간에 소년호 렬차는 깨끗해 진다.

# 비둘기가 물고 온 소식

나는 사회주의 락원으로 꽃피여 나는 농촌으로 날아 갔지요. 여기서는 숫한 초고중 졸업생들이 첫 번째 5개년 계획 기간에 2만명의 기사, 기수를 내겠다고 결심한 대로 열심히 일하며, 배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여러 동무들과 친해질 비둘기 애요. 나는 지금부터 우리 나라의 여러 곳을 찾아 려행을 떠난답니다.

여러 동무들에게 새 소식을 알려 드릴려구요…

나는 가는 곳 마다에서 공화국 창건 열돐 명절을 앞두고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를 향해 내달리는 슬기로운 로동자 아저씨들을 보았지요. 그 중에서도 당의 부름에 따라 일떠선 송남 청년 탄광, 강계 청년 발전소, 해주—하성간 철도 부설 공사, 평남 청년 탄전들에서의 민청원들의 투쟁은 참으로 눈부셨답니다.

이 즐비하게 일어 서는 새 학교들을 보세요. 이것은 첫 5개년 계획 기간에 실시될 중등 의무 교육을 위해 마련되는 것이랍니다.

소년 단원들은 나에게 말했지요. 《우리 나라에서의 중등 의무 교육제의 실시는 아세아 아프리카에서 처음 보는 자랑스러운 일이란다.》

여기서는 공화국 창건 열돐 명절을 다채롭게 기념하기 위한 연예 준비에 바쁩니다.

시원한 바다가 눈 아래 펼쳐졌습니다. 송후, 석암을 비롯한 수십 개소의 야영소마다에서 소년 단원들은 즐거운 여름의 한때를 보냅니다.

슬기로운 혁명 투사가 소년 단원들에게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런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것은 조선 로동당이 지도하는 우리의 인민 주권입니다. 바로 오늘을 위해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은 오랜 세월을 일제를 반대해 싸우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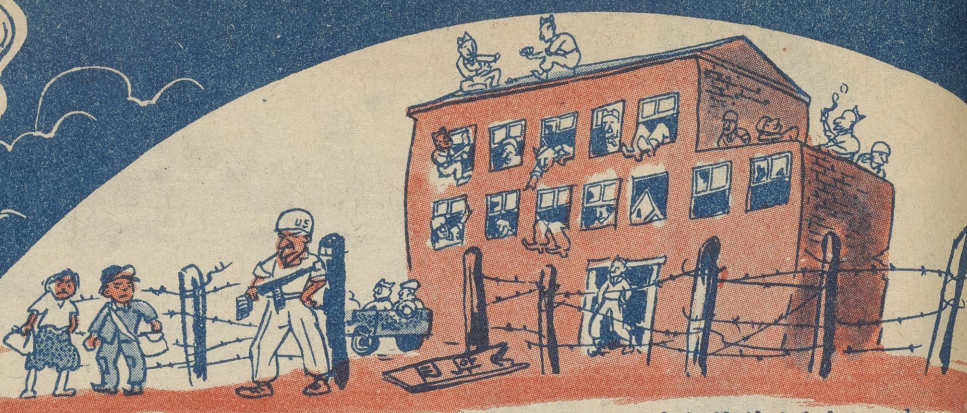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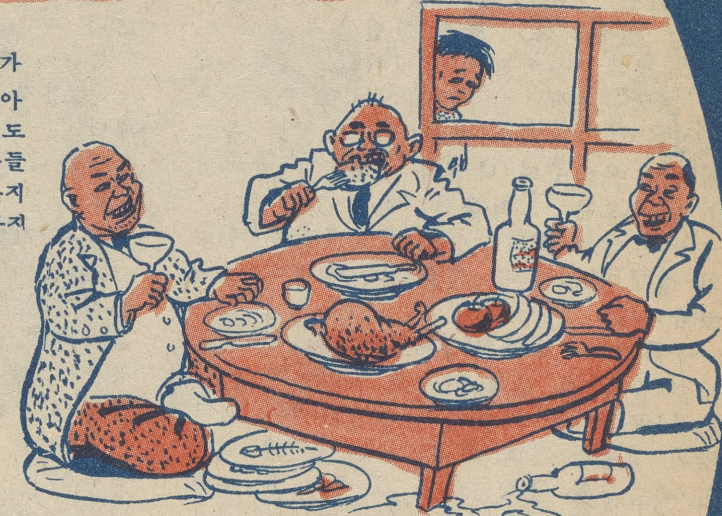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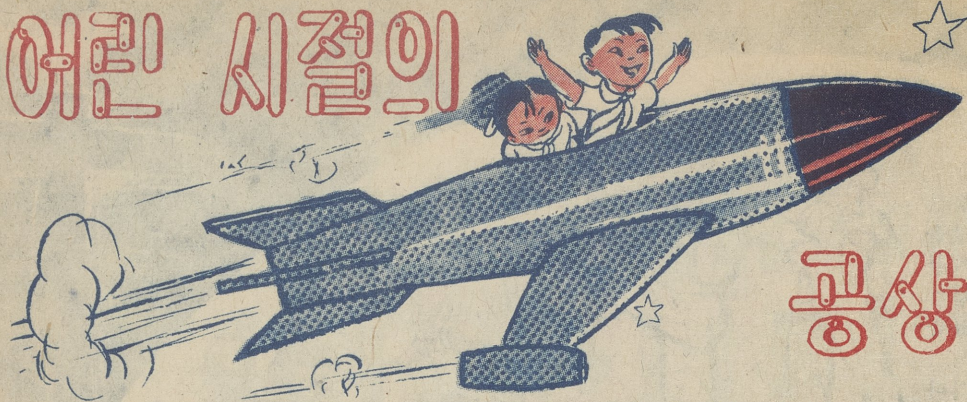
나는 이르는 곳 마다에서 소년 단원들의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불쌍한 남반부 소년들을 돕기 위해 많은 일을 했었는데 우린 이걸 빨리 남반부 소년들에게 보내고 싶어!》

우리 나라의 거리와 마을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깨끗하게 꾸려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소년 단원들의 힘도 적지 않게 깃들어 있답니다.

이것이 무슨 기차냐구요? 작년 한해 동안 우리 소년단원들이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에서 얻은 돈으로 철도 로동자 아저씨들에게 드린 소년호 렬차랍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에서 이런 착한 소년단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나는 다시 나래를 펴고 남쪽 하늘로 날아 갔습니다. 이것 보세요. 여기가 바로 남반부애요. 같은 날에 해방된 이곳은 왜 이렇게 어둡고 참혹할가요!
나는 여기가 학교인 줄 알고 들렸더니 글쎄 이게 웬일이겠어요. 여기에는 아이들 대신 숫한 키다리 양키놈들이 욱실거리고 있지 않아요.
학교가 없어 우린 이렇게 들판에서 공부한단다. 겨울에도 이렇게 추운 바깥에서 공부하지.
얘 여기가 뭘하는 데냐?
넌 왜 길'바닥에 앉아 있니?
수업료를 안 낸다고 학교에서 쫓겨 났단다.
계딱지 같은 판자'집 거리에서 한 어린이를 만나 왜 울고 있는가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국방군》에 끌려 가고 어머니는 배고파 죽었다지 않겠어요.
너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가고 물었더니 90만이 넘는다구 하지 않아요.
북진
리승만
U.S
승냥이 같은 미군놈들은 구두를 닦아 준 값을 달랜다고 이렇게 아이들을 구두'발로 차 넘기고, 마구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가지라구요. 미군놈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선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군 합니다.
미군놈들이 길가던 할머니를 깔아 죽였어요. 그런 데도 짐승 같은 미군놈들은 무엇이 즐거운지 껄껄 대며 사진까지 찍는거애요.
미군놈들과 리 승만 역도 놈들은 인민들이야 죽건 살건 상관이 없대요.
그러나 나는 용감한 로동자들도 봤지요. 어찌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겠어요.
그들은 용감히 일어나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우리 나라를 평화스럽게 통일하기 위해 미군놈들은 당장 나가라고 웨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평화통일 만세
미군 나가라
남조선 자원

# 어린 시절의 공상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원사
력사학 박사 박 시 형

어린 동무들!

우리는 지금 무한히 행복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선 인민은 악독한 일제 식민지 통치로부터 벗어나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창건하고 우리 나라를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사회주의 락원의 나라로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노력의 결과는 하루하루 우리의 실지 생활에서 훌륭하게 꽃피여 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보람찬 투쟁은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이 령도하고 있습니다. 로동당의 정확한 령도 하에 조선 인민은 원쑤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주구 리 승만 역도들이 불지른 전쟁을 영웅적으로 이겨내고 또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3개년 계획을 훌륭하게 완수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전쟁이 가져 온 혹심한 파괴를 깨끗이 씻어 버리고 오늘엔 다시 빛나는 제 1차 5개년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총 궐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도 우리의 모든 투쟁과 노력이 훌륭한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우리의 제 1차 5개년 계획도 빛나게 완수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것입니까!

조선 인민은 자기 투쟁에서 고립되여 있지 않습니다. 쏘련, 중국 및 모든 형제 국가들이 우리를 자기 일처럼 도와 주고 있으며 우리도 또한 이 나라들과 모든 일에서 서로 도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믿음직한 일입니까. 모든 형제 나라들과 함께 한가정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승리의 중요한 담보입니다.

동무들도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매일매일 배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더욱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동무들에게는 앞날에 대한 많은 공상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범 로동자, 모범 농민, 로력 혁신자, 기사, 기수, 학자, 예술가 등등의 많은 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꿈들은 다 좋은 것이며 또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껏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가 바로 동무들의 훌륭한 꿈들을 넉넉히 실현하여 줄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나 온 어린 시절이란 참으로 억울하였습니다.

그때의 학교라는 것은 오늘 동무들이 배우고 있는 그런 유쾌하고 재미 있는 학교가 아니였습니다. 그 학교들에서는 왜놈 교원들이 허리에 긴 칼을 차고 일본말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들에서는 훌륭한 과학이나 예술이나 기타 우리 생활을 향상시키고 문화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학과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일본놈들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만을 가르쳤습니다.

동무들, 생각하여 보십시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에게 무슨 아름다운 꿈이 있었겠습니까? 다만 있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루 바삐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벗어 나려는 그 한 가지 생각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어린이들이 자기로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 것은 역시 이 한 가지 목적을 바라 보고 한 것이였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조국 력사에 대해서 말한다면 당시 일본 제국주의놈들은 우리에게 조선 력사를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제는 그 마지막 판에는 조선 말도 없애고 조선 사람의 성명까지 일본식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였습니다.

일본놈들은 마치 조선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훌륭한 력사라고는 전혀 없는듯이 꾸며 대였습니다. 우리 력사에서 리 순신 장군이나 을지 문덕 장군, 강 감찬 장군 같은 위대한 애국자들에 대하여도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우리 어린이들은 일본놈들이 꾸며 대는 이 거짓말들을 곧이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정말 조선 력사를 공부해 보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생각은 간절하였지마는 우리는 일제가 만든 학교에서는 그것을 도저히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조선 력사를 공부해 보려는 조선 사람이 있다면 일제는 여러 가지로 그들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왜놈들 몰래 조선 력사를 공부하여야 하였습니다. 나도 우리 동무들과 함께 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점점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애국심에 불타는 우리 조상들이 리 순신 장군과 함께 일본 침략자들을 몰아낸 훌륭한 력사도 알게 되였습니다. 또 우리는 당시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생각하지 못하던 훌륭한 군함, 거북선을 만든 것도 바로 리 순신 장군과 그에 지도된 인민들이였다는 것도 알게 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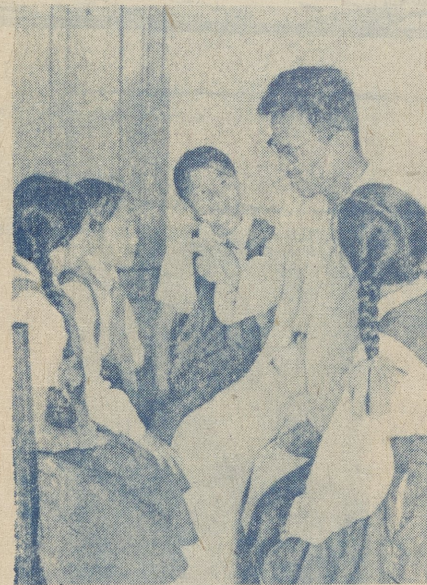
또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나 우량계 같은 것을 발명한 것도 바로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날의 우리들은 마음껏 배우며 아름다운 꿈을 지닐 수 있게 되였습니다.

어린 동무들!

훌륭한 지식은 그만큼 사람들의 힘을 북돋우어 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혹 이러저러한 일에 마음이 삭갈려서 갈피를 잘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어느 한 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지식을 넓히고 노력을 하는데 높은 목적을 언제나 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자기도 앞으로 사회에 쓸모 있는 훌륭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제 하에 소년들이 겪은 그러한 고생은 벌써 옛'이야기로 되였습니다.

동무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왜냐 하면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를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이 다 준비되여 있기 때문입니다.

동무들! 동무들은 우리의 대를 이어 받을 래일의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들입니다. 훌륭한 앞날의 꿈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배우며 더욱 용감히 앞으로 나아 갑시다!

# 나는 커서 무엇이 될가?

## 나는 바다에서 일하렵니다

함남 신창군 제 5중학교 대
제 1분단 유 용석

나는 지금 초중 2학년입니다. 이제 1년만 지나면 나는 초중을 마치고 어로 로동자가 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다에서 일하려고 마음 먹은 것은 어렸을 때부터였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오랜 세월 어로 로동자로 바다에서 일해 오셨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나는 언제 아버지처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아 볼가? 하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신이 나는 일일가!

나는 차차 나이 들면서 정말 바다에서 일하고 싶은 희망으로 불탔습니다.

나는 때때로 수산 협동 조합에 나가서 그물도 같이 끌며, 고기도 펴 담으며, 아저씨들이 모여 앉아 고기를 많이 잡던 이야기도 듣군 했습니다.

작년 여름 방학 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처음으로 고기'배를 타고 먼 바다까지 나가 숫한 가재미를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참으로 바다'사람이란 용감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창 수산 사업소에 견학 갔을 때도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어로 로동자들이나 가공 로동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인민들을 위해 하는 일이거니 생각하니 참으로 부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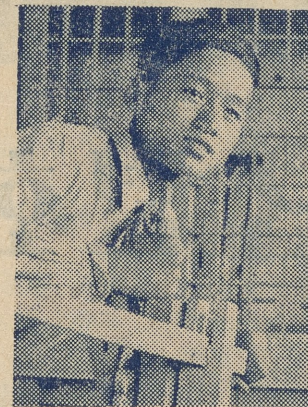
나는 언젠가 아버지에게 내 희망을 말한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아버지는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아무렴 어부의 아들이 바다를 떠나서야 되겠느냐, 더구나 지금은 젊은이들이 필요한 때야. 이젠 우리 같이 옛날대로 고기 잡이해 오던 사람들만 가지군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를 보낼 수 없게 됐다. 새 기술을 배운 젊은이들이 절실히 요구된단 말이야! 어서 희망을 굽히지 말고 바다에서 일해라.》

꼭 나는 바다에서 일하렵니다.

## 나는 건축가가 되렵니다

남포 제 2중 학교 대
9분단 오 조성

얼마 전에 나는 공작 크루쇼크에서 측량법을 배웠습니다. 학교 주변을 측량하고 도면을 그리며 설계하는 일은 참으로 재미 있었습니다.

장차 건축가가 되려는 나에게는 참 큰 공부이지요.

나도 1년 후에는 초중을 졸업하니까요. 졸업장을 받아 쥐면 나는 곧 건설장으로 가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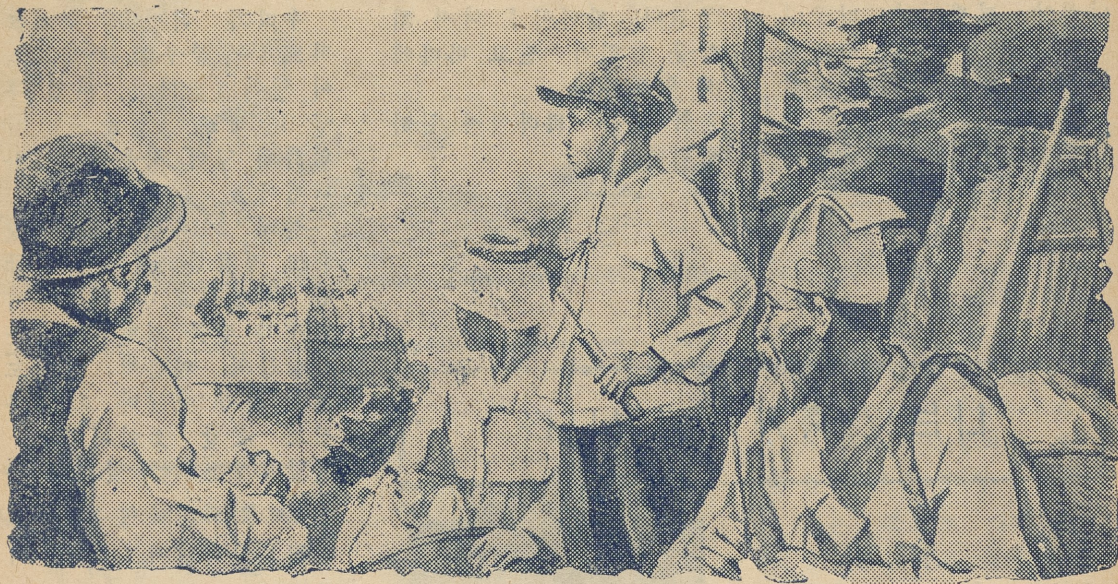
낮과 밤을 이어 불꽃 튀는 일터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익혀 가는 것—이것은 나의 제일 큰 희망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건설장 일을 도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터전을 닦기도 바쁘게 우쭐우쭐 4~5층 집이 일어섰습니다. 며칠 후엔 벌써 큰 건물들이 즐비하게 일어 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설계 기사는 아주 세밀하고 정확한 설계를 해야만 되겠지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되면 그 집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래 가지도 못할 것이니까요.

(앞으로는 더 멋있고 훌륭한 아빠트들이 건설될테지) 일하면서도 나의 머리에서는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며 어떤 집이고 제마음 대로 설계할 수 있는 설계 기사가 참 부러웠습니다.

《크면 나는 적은 돈을 들이고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설계를 할테야. 100층 집도 말이야》 어느 새 나는 동무들에게도 이런 자랑을 하게 되였습니다.

지금 나는 공작 크루쇼크에서 배운 지식을 더 넓히며 깊게 하는 실험 실습에서도 누구보다 더 힘쓰고 있지요.

# 두 소년 회원

글 현 희 균　　　　그림 유 환 기

1939년 5월 어느날,

그날은 마침 보천보 장날이였습니다. 사방에서 장'군들이 모여 들고 있었지요. 감자'가루 한 말을 걸머진 리 중석 소년도 어른들 틈에 끼여서 보천보 장'거리를 향하여 타박타박 걸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쉬여들 가지》

국수당 고개'마루에 이르렀을 때, 맨 앞장에서 걷고 있던 구레나룻 할아버지가 짐을 벗어 놓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중석 소년도 길'가에 짐을 벗어 놓고 이마에 송알송알 내 돋은 땀을 훔치였습니다.

맑디맑은 봄 하늘에는 종달새들이 낮추 떠서 자유롭게 나래치고 있었습니다. 중석 소년은 두 팔을 들어 길게 기지개를 하고는 길 옆에 흐르는 개울 물에 무심코 시선을 주었습니다. 동거리도 못 입고 되는 대로 질끈 대님을 친 헌 짚신을 신은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 물 우에 비쳤을 때 중석 소년은 픽 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는 자기 저고리 안 주머니에 들어 있는 물총 생각이 피뜩 떠 올라 후덕떡 도랑으로 뛰여 내려 갔습니다. 소년은 도랑'가에 쪼그리고 앉아 물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물총은 미끈한 가래나무 아지 한 토막을 잘라 쟁돌려 만든 것인데 말하자면 바늘이 없는 주사기 비슷한 것이였습니다. 중석 소년은 물총 끝을 도랑물에 꾹 잠그고는 천천히 공기를 잡아 당겨 물을 들이 빨았다가 다시 찍찍 냅다 쏘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잊고 몇 번이고 물장난을 하다가 다시 어른들이 쉬는 곳으로 올라 왔습니다.

《허 세월두 고약하지. 글쎄 낟알이란 메밀쌀 두말 뿐인데 이걸 팔아야 세금인지 뭔지를 물지 않겠소.》

베 감투를 쓴 구레나룻 할아버지가 대통에 담배를 꾹꾹 눌러 담으며 말을 꺼내는 것이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았던 할머니가 말을 받았습니다.

《말 다 해 뭘하겠수. 며느리가 해산을 했는데 미역이 있어야지요. 생각다 못해 종지'닭을 잡아 들고 부랴부랴 집을 나섰지유.》

머리에 고깔처럼 수건을 둘러 쓴 그 할머니는 한심한 표정으로 머리만 벅벅 긁는 것이였습니다.

중석 소년은 이들의 말을 결코 무심히 듣고 넘길 수 없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얘야 넌 어디 사니? 그리구 참 몇 살이지?》

담배만 빽빽 빨던 구레나룻 할아버지는 중석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열 세 살이예요. 우리 집은 저 압록강 건넌편에 있답니다.》

중석 소년은 물총에 묻은 물'기를 깨깨 뿌려 떨고는 슬그머니 호주머니에 다시 집어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럼 중국 땅에 산단말이구나. 그래 장엔 뭣하러 가지?》

《감자'가루 팔아서 아버지에게 보낼 로동화를 사러 가요. 우리 아버지는 저 백두산 벌목장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아니 그럼 그 물총은 누가 만들었지? 아버지도 집에 안 계시다면서》

《내가 만들었지요 머. 그까짓거쯤 못 만들게 뭐애요?.》

바로 그 때였습니다. 갑자기 《뚜뚜—》하고 왜놈 수비대를 가득 실은 다섯 대의 트럭이 나타나더니 먼지를 뽀얗게 일쿠며 보천보 쪽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개자식들!》 할아버지는 놈들의 자동차를 향하여 침을 탁 뱉으며 말했습니다.

《요새 우리의 빨찌산들에게 혼살을 먹더니, 놈들이 저렇게 모여 들기 시작했단다. 잔뜩 발이 재린 놈들은 밤낮 저 지랄이지, 얘야 넌 참 김 장군 소문 못 들었니? 장군님만 오시면 저깟놈들 이야 그저 독 안에 든 쥐새끼지 허허…》

《그래 왜놈들이 얼마나 되나요?》

《뭐 한 8백 명 된다든가, 아니 천 명이 가깝다는 말도 있더구나.》

중석 소년은 보천보 경찰 주재소 형편에 대해서도 더 끈끈히 물어 보았습니다. 숨이 탁탁 막힐 정도로 가슴 답답한 인민들의 형편을 어린 중석 소년인들 어찌 몰랐겠습니까.

중석 소년이 보천 시장에 다달았을 때 낮 열 두 시 고동이 길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자'가루 한말에 70 전을 받고 인차 팔아 치웠습니다.

중석 소년은 그 길로 면 사무소, 우편국, 금융 조합, 헌병대 등을 한 바퀴 돌아 보고 나서 경찰 주재소 앞에 있는 상점에 들어 갔습니다. 로동화를 사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상점에서는 로동화 한 켤레에 75 전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자 다섯말을 갈아서 만든 감자'가루 한 말을 팔아서도 로동화 한 켤레를 살 수 없는 형편이였습니다. 그는 사정사정해서 70 전에 겨우 신을 사 가지고 상점을 나왔습니다.

소년은 상점 앞 박우물에서 랭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에라 좀 쉬여 갈가?) 소년은 저고리 안 주머니에서 아까 그 물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중석 소년은 물총 끝을 물에 담그고 천천히 공기를 죽 잡아 당겼습니다. 그리고는 물총 끝을 슬쩍 거꾸로 세우고 공기를 쭉 냅다 밀었지요. 물총 안에 들었던 물이 찍하고 신작로 쪽으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신이 난 그는 꼭 같은 뽄새로 다시 한 번 물총을 《솩—》하고 냅다 쏘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였습니다.

《얘 이자식아!!》

날카로운 소리에 흠칫하여 고개를 번쩍 든 중석 소년은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상점 앞을 지나 가던 어느 한 소년이 중석의 물총에 물벼락을 맞았던 것입니다. 중석 소년 보다 한 살쯤 더 나 보이는 까만 동거리를 입은 그 소년은 길 가운데 오뚝 서서 중석 소년을 노려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미안 해.》

난처한 중석 소년은 어쩔 줄을 몰라 쩔쩔 매면서 겨우 이렇게 말했지요.

《정말 미안 해, 장난질 치다가 모르고 그랬어.》 그는 련거퍼 빌다 싶이 했습니다. 그러나 표독스런 눈초리로 중석 소년을 노려 보던 까만 둥거리는

《뭐야 이 자식!》

하고 중석 소년에게 따귀를 갈겨는 것이였습니다. 순간 중석의 귀'봉에서는 불이 번쩍 일었지요.

《안야, 내가 모르고 그랬다니까》

그래도 중석 소년은 두어 걸음 물러 서면서 진정 미안해 하였습니다. 벌써 조무래기들이 오구구 모여 오기 시작했어요.

까만 둥거리는 련방 중석 소년에게 따귀를 들이 안겼습니다. 한편 중석은 아무래도 까만 둥거리에게 이길 가망이 없어 슬슬 경찰 주재소 쪽으로 뒤'걸음질 치면서 밀려 갔습니다.

《이 자식아, 그, 그, 사람 쏘는 물총 내 놔!!》

까만 둥거리는 점점 더 악착스럽게 달려 들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중석의 저고리 섶을 붙잡고 늘어지더니 물총을 빼앗아 들고 뚝 동강 내여 꺾어버렸습니다.

《에익!》

참고 참았던 중석 소년이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는 맞받아 나가며 까만 둥거리를 답새겨댔습니다. 마침내 두 소년은 안고 뒤넘어 치면서 뚱개는 것이였습니다. 싸움은 점점 판이 커졌습니다. 거리에 득실거리는 《수비대》 놈들이 기웃기웃하면서 이 모습을 보고도 그저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쨌든 중석은 까만 둥거리를 경찰 주재소 쪽으로 점차 유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어쨌든 싸움을 말려 줄게 아닙니까.

동네 어른들이 두 소년의 싸움을 뜯어 말려 보았으나 막무가내였지요. 경찰 주재소 앞 마당은 싸'움'군, 구경'군, 말리는 사람 등으로 오구작짜 들끓었습니다. 그제야 경찰놈들은 《이 놈들아!》 하며 번들번들한 환도를 차고 나타났습니다.

《순사 온다! 순사!》하며 비슬비슬 흩어져 달아 나는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이 눈치를 챈 까만 둥거리는 중석 소년에게서 떨어져 달아 나려 했으나 이미 때가 늦었었지요. 중석 소년은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되여 엉엉 울면서 순사놈을 따라 주재소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이 개 개새끼가…》 중석 소년은 분에 못'이겨 흐느껴 울면서 순사놈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주재소 안을 찬찬히 눈여겨 살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이 자식을 혼, 혼내워 주세요. 네 나리님.》하고 애걸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묻은 두 개로 동강 난 중석 소년의 나무 물총이 순사놈 책상 우에 되는 대로 딩굴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모든 사정을 들은 순사놈들은 중석 소년을 얼마간 동정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하여 까만 둥거리를 두어개 짓모더니

《집이 가! 싸우지나 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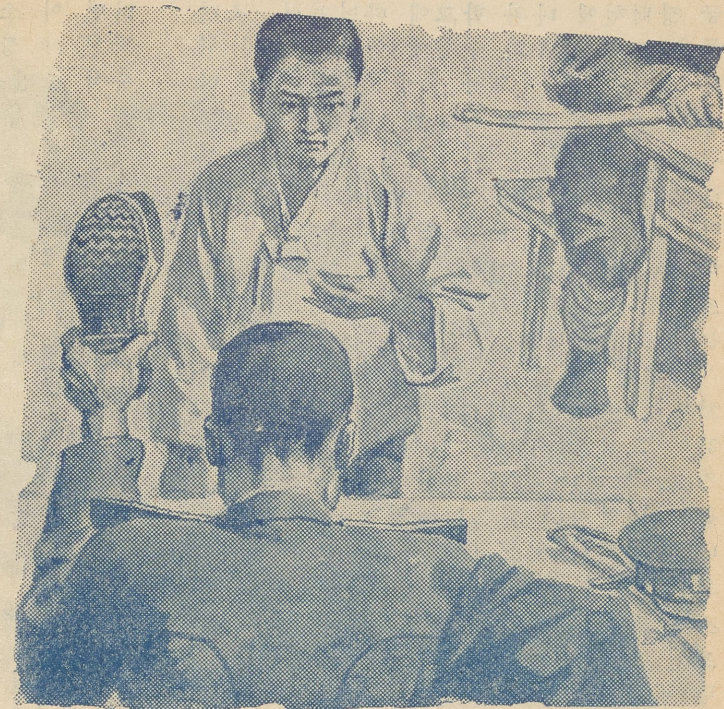
하며 시끄럽다는듯 문을 쫙 열고 두 소년을 한꺼번에 밖으로 탁 떠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석 소년은 하마터면 넘어질번하고 비츨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때 중석 소년에겐 또 하나 뜻하지 않은 불행이 생겼답니다. 아까 상점에서 산 바로 그 로동화가 그의 겨드랑에서 땅에 떨어졌거든요. 그리하여 중석만은 다시 주재소에 끌려 들어 갔습니다.

《이 자식아, 똑똑히 말이 해! 네 애비 빨찌산이지 아?》

순사놈은 조금 전과는 딴판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뭣 때문에 어린 놈이 이렇게 큰 로동화를 샀는가? 아버지가 백두산 벌목장에서 일한다는건 거짓말이다. 빨찌산에 보내기 위해 이 로동화를 산게 아닌가? 놈들은 이렇게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안예요. 우리 아버진 벌목분데요, 머.》

중석 소년은 계속 우겨대지 않으면 안 되였지요. 사실 당시 압록강 건너 동북 땅에서는 광목이며, 로동화이며 하는 물건들을 인민들에게 마음 대로 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민들이 장군의 빨찌산 부대에 그런 물건들을 사 보내지 못하게 하자는 수작이였지요. 가령 광목 같은 것은 일년에 한 식구에 한 메터 밖에 팔지 않았는데 이것마저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했으며 또 광목을 사 온 후에는 그것으로 누구의 무슨 옷을 지었다는 허가를 받아야만 되게끔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곳 인민들은 적지 않은 경우에 조선 땅에 건너 와서 물건을 사다가 장군 부대에 보내는 수가 많았지요. 국경 거리인 보천보에서도 왜놈들은 이렇듯 인민들이 어떤 물건을 사는가에 대해서 눈깔을 히번득거렸습니다.

중석 소년은 한참 후에야 《용서》를 받고 주재소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 × ×

집으로 돌아 오던 중석 소년이 국수당 고개'마루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야 중석아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어!》하고 반가이 그를 얼싸 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중석에게 진달래를 한 아름 안겨 주면서 진정 반가와 하는 것이였습니다. 진달래를 받아 안은 중석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조국 강산에 핀 한떨기 진달래도 그는 무심히 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석을 그처럼 반겨 주는 소년은 과연 누구일가요? 놀라지들 마십시오. 그 소년이 바로 얼마 전 보천보 시가에서 중석 소년과 그처럼 세차게 싸운 그 까만 둥거리 소년입니다.

이제 이 두 소년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본시 장군 부대에서 자란 아동 혁명단원들인데 지

금 장백현에 나와 학교에 다니면서 소년들을 조국 광복회 주위에 묶어 세우기 위한 소년회의 지도자 동무들이랍니다. 리증석 소년은 조국 광복회 장백현 위원회 위원장인 리 제순 아저씨의 조카로 가장하고 그 집에 살면서 공작하는 중이였으며 까만 둥거리 김 증손 소년은 역시 조국 광복회 주요 간부인 김 병철 아저씨의 조카로 가장하고 그 집에 살면서 공작하는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요 얼마 전에 장백현 조국 광복회에서는 김 일성 장군의 직접 지시에 의하여 보천보 시가를 정찰해 간 일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후 놈들의 주재소에 경찰놈들이 얼마나 있으며, 거기 무장이 얼마나 배치되여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년 회원은 그것을 더 잘 알아 보기 위해 보천보로 건너 와 일대 연극을 꾸몄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맡은 다른 한가지 임무는 보천보 일대에 적들이 얼마나 집결되고 있는가를 알아 가는 문제였습니다.

《빨리 가서 아저씨들께 보고하자! 그러면 이 소식은 곧 장군님께 알려질 테지? 야 장군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가.》 증석 소년은 김 증손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글쎄, 놈들이 이 로동화에 대해서 비슷이 냄새를 맡았던 모양이야》

정찰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 가는 소년들의 얼굴은 한없이 빛났습니다. 사실 이 로동화는 장군 부대에 보내기 위한 모연 공작의 하나였답니다. 소년들은 발'걸음도 가볍게 압록강 쪽으로 걸어 가고 있었습니다.

《뻐꾹— 뻐꾹——》

두 소년 회원들의 성공을 축하하는듯 우거진 숲 속에서는 반가운 뻐꾹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뻐꾹— 뻑뻑꾹—하고 온 산의 뻐꾹새가 일제히 화답하는 것이였습니다. 두 소년 회원들은 그 곡진한 새 소리에 마음이 끌려 고개를 부쩍 쳐들었지요. 조선 사람의 슬기로운 기상을 가슴에 안고 아아하게 치솟은 백두산 봉우리가 그들의 눈에 안겨 왔습니다.

# 행복에 대한 이야기

평북 광성군 제 4 중 학교
대 위원장 김 혜 도

사진 리 종 록 촬영

**공화국 창건 열 돐을 앞두고 여러 가지 유익한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 광성군 제 4 중 학교 대 제 7분단에서는 얼마 전에 《사회주의 조국에서 사는 행복》이라는 이야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모임에서 아래와 같은 이야기들을 서로 즐겁게 나누었습니다.**

———◇———

**류 정자**— 나의 아버지는 락원 기계 공장의 용해공입니다. 내가 작년에 군 야영소로 떠나던 날 아침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등에 배낭을 지워 주시면서 이런 말을 하시던 것이 생각납니다.

《참 좋은 세상이다. 인민의 나라가 아니구서야 로동자의 자식이 야영소가 다 뭐겠니》하고 아버지는 몹시 행복스러운 얼굴을 지으셨습니다.

나는 즐겁고 유쾌한 야영 생활을 하면서 이 날 아침에 하신 아버지의 말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담한 사택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언젠가 이것은 왜정 때에는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라고 나에게 말한적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서선 중공업 주식 회사에서 운반공으로 일하면서 자본가놈의 악독한 착취를 받으며 살아

왔습니다. 그 때는 어디를 가나 로동자들은 12~13 시간씩 고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로동자들은 하루에 한끼도 먹을가 말가한 그런 형편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였다고 합니다. 이 날도 새벽에 집을 나와 밤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가려던 로동자들은 방금 부두에 와 닿은 배에서 석탄을 또 퍼 내야만 했습니다. 주인놈은 빨리 서둘지 않는다고 고아댔습니다.

그러나 로동자들은 그 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놈은 대뜸 《이 놈들아! 말을 듣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을테다!》하고 을러댔습니다. 그 놈들은 찍하면 임금을 들고 로동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로동자들은 그놈의 강요에 못이겨 등'짐으로 석탄을 날랐습니다. 그러나 점심도 굶은 나의 아버지는 그만 석탄을 지고 내려 오다 그 높은 다리에서 공중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류 정자◇

아버지는 허리와 다리를 몹시 다치였습니다. 그러나 악독한 주인놈은 치료비는 고사하고 그 날로 아버지를 일에서 떼여 버렸습니다.

나는 똑똑히 압니다. 이것은 로동자, 농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지주, 자본가놈들이 주인 노릇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에 국가 표창을 받은 나의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군 합니다.

《인민 주권 하에서만이 우리들에게는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홍 경화**— 정자의 말이 옳아요. 아버지가 살아 오던 옛날에는 왜놈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수 많은 로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러기에 김 일성 원수님을 선두로 한 슬기로운 혁명 투사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인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인민의 나라를 찾기 위해 악독한 왜놈들과 싸우셨습니다.

◇홍 경화◇

**서 용실**— 나의 아버지는 지금 락원 농업 협동 조합원으로 있지만 일제 때에는 지주놈의 머슴'군이였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열세 살 때부터 정의건이란 지주놈의 머슴살이를 해 왔습니다. 눈보라 치는 어느 날 지주놈은 나의 아버지더러 자기 아들을 학교에까지 업어다 주라고 하였습니다. 학교는 먼곳에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지주놈에게 찾아 가서 《날씨가 사나운데 어린 것이 어떻게 업고 가겠소 제가 갔다 오리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주놈은 와락 성을 내며 《무엇이 어째! 망할놈의 늙은이, 베를 짜기가 싫단 말이지!》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할 수 없이 나의 아버지는 그 놈의 자식을 업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날씨가 사나운 날이면 의례히 아버지를 불러 이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 때마다 할머니의 가슴은 쓰리고 아팠습니다.

어느 날 지주놈의 아들을 학교 교실에까지 업어다 놓은 나의 아버지는 교실 밖으로 흘러 나오는 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어찌도 글 소리에 열중하였던지 아버지는 시간이 필한 것도 모르고 교실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서 용실◇

이 날밤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도 학교에 가고 싶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놈의 짓을 해야 합니까. 이 곳을 떠나자요.》

그러나 할머니는 눈물을 먹음고 그 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나 일본놈과 지주놈의 착취는 매한가지였기 때문이였습니다.

이것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들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의 아버지도 건강하게 일하시고 파란에 류학 갔다 온 나의 오빠도 씩씩하게 일을 잘하시고 나도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인민 주권이 가져다 준 행복입니다.

나는 우리의 인민 주권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이것을 다시는 원쑤놈들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슴 깊이 다짐하군 합니다.

**최 영자**— 동무들의 말들이 옳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일제 시대에는 살 곳을 찾아 이리 저리로 흘러 다녔지만 그러나 오늘 인민 주권의 따뜻한 품 속에 안긴 우리들은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이 사회주의 조국을 꽃피워 나가는 행복 속에 마음껏 배우며 마음껏 뛰여 놀며 있습니다.

◇최 영자◇

이것은 오직 조선 로동당이 지도하는 우리 인민 주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학교로 오고 갈 때마다 나라의 주인된 자랑을 안고 눈부시게 일하고 계시는 락원 기계 공장 로동자 아저씨들을 매일처럼 봅니다. 로동자 아저씨들은 한 대의 양수기, 한 대의 기중기라도 더 많이 건설장에, 농촌에 보내기 위하여 눈부신 증산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일을 더 훌륭히 해야겠는데 그저 시간이 부족한게 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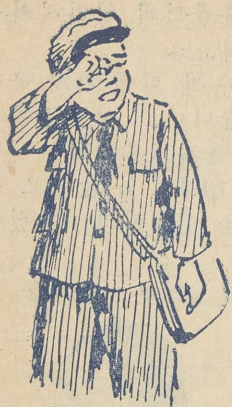
이 말씀은 모든 로동자 아저씨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더 훌륭하게 일하시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 정옥**— 나는 얼마전 락원 기계 공장을 견학 간 일이 있습니다. 이 공장의 모든 선반공 아저씨들과 용해공 아저씨들은 공화국 창건 10주년을 앞두고 불꽃 튀는 증산 투쟁을 전개하고 계셨습니다.

이날 나를 감동시킨 것은 용해공 리석명 할아버지의 말씀이였습니다.

◇서 정옥◇

《보아라! 우리 로동자들이 해 놓은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나도 젊은이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힘을 쓰지만 늙은 놈의 팔뚝이 말을 듣지 않아 걱정이구나! 우리 나라에서는 나와 같은 늙은이를 존경하며 크나큰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단다. 나라에서는 나에게 사회 보험료를 주면서 일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단다. 왜놈 세상에서야 어디 생각이나 해 볼 일이겠니! 나는 그 권고를 듣지 않았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 되고 우리들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는 이상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내 나라를 위해 일할 작정이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할아버지 한 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나는 공장을 견학하면서 애국의 열정으로 들끓는 로동자 아저씨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마다에는 인민 주권이 가져다 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 말썽'군

평양 제 18 중학교 대 제 26 분단에서

본사 기자 박 정 렬

그림 백 대 진

《분단은 그의 잘못을 고쳐 주었다》에 대한 읽은 책 이야기 모임을 가지는 날이였습니다.

동무들 앞에 나선 안 영환 동무는 가슴이 막 울렁거렸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가?》 영환 동무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하느라고 한참 동안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 주인공인 동하는 참 나쁜 아이였습니다. 그는 영화관 위생실 창문으로 뛰여 넘고도 거짓말을 꾸며 대며 동무들을 마구 때렸습니다…》 하고 여기서 일단 말을 끊더니 어째서인지 낯을 붉히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 그렇지만 나는 동하보다 더 나쁜 아이였습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꼭 동하같은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숨을 죽여 가며 영환 동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분단 동무들의 입가에는 모두 기쁨과 만족의 웃음들이 피여 올랐습니다.

영환 동무가 이처럼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얘기해 보기는 처음이였기 때문이였습니다.

*　　*

작년 새 학년도에 다른 학교에서 전학해 온 영환 동무는 분단의 큰 말썽'군이였습니다.

영환 동무는 몇몇 장난'군 애들과 휩쓸려 다니면서 갖은 나쁜 짓을 다 하였습니다.

아동 공원에 가면 어린 동생들을 마구 때리며 돈을 빼앗아서는 영화 구경도 가군 하였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아저씨는 나무 우에 기여 오르며 울타리를 뛰여 넘는 영환 동무를 꾸짖다 못해 학교에까지 알려 왔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분단 모임과 벽보에서 그의 옳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여러 가지로 충고도 주고 비판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영환 동무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관에 자주 드나드는 영환 동무는 한 번은 혼잡한 틈을 타서 어떤 아이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붙들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분단 동무들은 모두 격분하였습니다.

《이건 분단의 망신이야! 우린 더는 참을 수 없다!

이런 소년단원 답지 않은 영환일 더는 우리 분단에 둘 수 없어…》 하고 동무들은 웨쳤습니다.

영환이와 제일 친하던 만철이도 격분에 얼굴을 붉혀가며 영환이의 나쁜 행동을 죄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영환이는 오히려 (이 새끼들 두고 보라…) 하고 오히려 제가 성이 나서 속으로 두덜댔습니다.

그 후에도 분단 열성자들은 어떻게 하면 영환이를 고쳐 주겠는가 하고 애를 태웠습니다.

어느 날 분단 지도원 선생님이 열성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선생님은 영환이에게 비판 하나만 가지고 대들지 말고 그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도 해 주면서 같이 휩쓸리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분단은 곧 지도원 선생님의 충고 대로 새로운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분단의 위임을 받은 분단 위원인 림 길덕 동무는 매일 같이 영환 동무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공부를 같이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절히 가르쳐도 주었습니다. 길덕 동무는 제 5 반인 영환 동무네 반 동무들에게 제의하여 모란봉에 산보도 같이 가며 아동 공원에 가서 재미있게 노는 일도 조직하도록 하였습니다.

될수록 영환 동무와 반 동무들이 서로 친해지게 했습니다.

영환 동무는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누나네 집에서 살았습니다. 누나는 그를 여간만 귀여워하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무엇이나 그가 하고 싶은 일이면 죄다 들어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영환에게는 어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군 없게 되여 제멋대로 장난치고 돌아 다니게 되였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도 례절 없는 아이였던지 선생님들에게도 인사를 변변히 하지 않았을 뿐더러 말대답도 곧잘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분단 동무들은 이처럼 례절 없고 소년단원 답지 못한 영환 동무를 좀처럼 가깝게 지내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길덕 동무는 영환 동무가 참된 소년단원의 품성을 갖도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가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길덕 동무는 영환 동무와 친하게 지내면서부터 자기의 모범을 통하여 말 없는 교양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영환이는 길덕 동무 앞에서는 나쁜 장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환 동무는 아무 련락도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아 보니 급성 폐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이였습니다.

길덕 동무는 곧 이 사실을 분단에 알렸습니다. 길덕 동무는 영환이가 입원 기간의 학습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날 분단 열성자들은 꽃과 선물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 갔습니다. 자기를 찾아 온 분단 열성자들을 보자 영환이는 당황과 기쁨이 한데 뒤엉킨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날 그는 몹시 행복스러운 얼굴을 짓고 있었습니다.

영환 동무가 퇴원하는 날에는 그의 누나와 분단 지도원 선생 그리고 열성자들까지 모두 병원에 왔었습니다.

이 날 영환 동무는 얼마나 감격하였던지 눈'시울을 붉히며 열성자들의 손목을 일일이 굳게 잡으면서 처음으로 《고마워!》 하고 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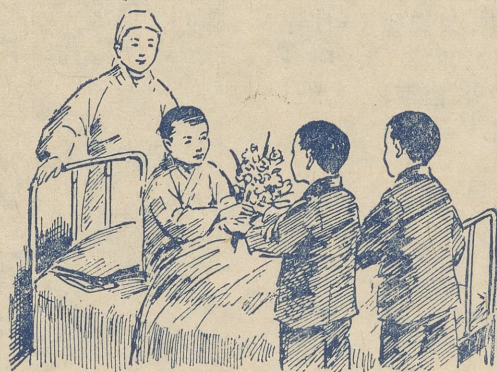
병원에서 나오면서부터 영환 동무는 차츰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이제는 붉은 넥타이도 매고 다니면서 말을 조심하는 듯 잘못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이 눈에 띄였습니다.

3학기에 들어 서면서부터 분단에서는 길덕 동무의 제의로 《좋은 일만 적는 수첩》을 만들고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좋은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부터 분단 동무들은 저마다 좋은 일만 하려고 힘썼습니다.

빠스에서 늙은이들에게 자리를 내 드리는 일, 오그라진 걸상을 손질하며, 공원 청소를 하는 등 그들의 수첩마다에는 자랑들이 가득가득 담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5월 4일! 길'가에서 얻은 꾸러미에는 3만 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 있었다. (어떻게 할가?) 망서리다가 나는 곧 임

자를 찾아 줄 것을 결심하고 분주소로 달려 갔다. 돈을 찾은 임자는 너무나 기뻐 어쩔줄을 몰라 했다. 나는 기뻤다—

영환 동무의 수첩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았을 때 분단 동무들은 모두 자기 일 처럼 기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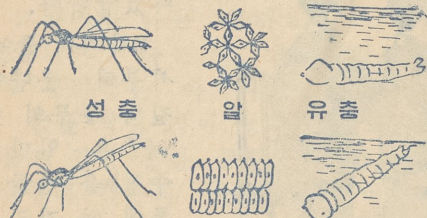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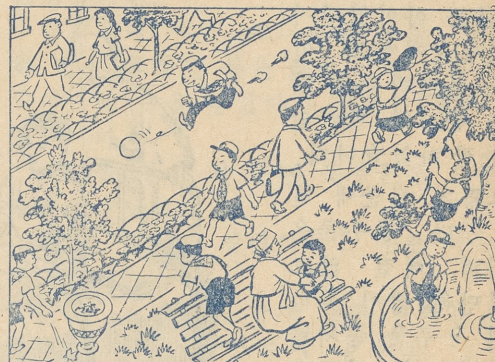
《안 영환 동무는 훌륭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소년단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참된 소년단원의 품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래야만 장차 훌륭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분단 지도원 선생님도 기뻐하였습니다.

영환 동무는 날이 갈수록 차츰 활기를 띠며 동무들과 같이 휩쓸리게 되였습니다. 그러던 중 분단에서는 읽은 책 이야기 모임 준비를 영환 동무에게 위임하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영환 동무로 하여금 더 빨리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했고 그가 참된 소년단원으로 자라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 ❋

《나도 이제부터는 동무들 처럼 어데서나 소년단원답게 참되게 행동하렵니다…》 영환 동무의 이야기가 끝나자 동무들은 막 손'벽을 치며 그를 얼싸 안았습니다.

(1) 다음 그림은 보통 모기와 마라리아 모기의 알, 유충, 성충들입니다. 그림에다 보통 모기에는 ①. 마라리아 모기에는 ②의 번호를 달면서 구분해 보세요.

성충 알 유충

(2) 그림에 나타난 동무들의 비문화적인 점들을 고쳐 줍시다. 어떤 점을 어떻게 고쳐야 할가요?

편집 위원 김 학연(주필) 리 원우 박 응호 송 정우 신 진균 최 윤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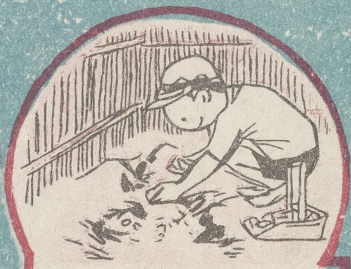
1958년 7월 1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8년 7월 22일 발행 《소년단》 1958년 제 8호 (총106호)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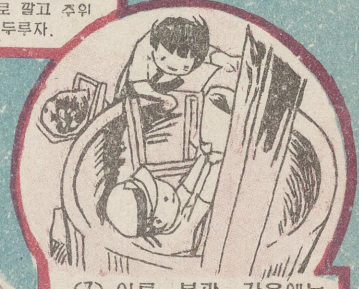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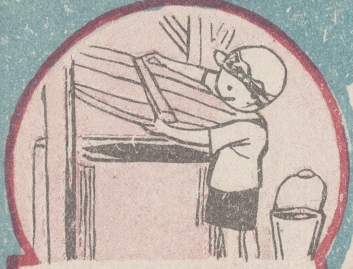
ㄱ—40994 값 25원 80,000부 발행



# 우리나라에서 만든 식료가공품

# 우물의 위생 관리는 건강을 돕는다

(1) 드레박 우물은 주위에 $5m^2$의 면적을 깊이 50~80cm 정도로 진흙을 다져 넣고 오물이 스며 들지 못하게 하자.

(8) 박우물(샘우물) 바닥에는 굵은 자갈과 잔 자갈을 순서로 깔고 주위에는 울타리를 철저히 두루자.

(2) 우물 주위에는 물이 흘러 내릴 수 있게 도랑도 쳐 놓아야 한다.

(7) 이른 봄과 가을에는 한번씩 우물 밑바닥을 청소해 내자.

(3) 우물에서 물을 길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뚜껑을 덮어 두자.

(6) 우물 주위 반경 4~5m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우마차나 가축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자.

(4) 우물에는 반드시 공동용 드레박을 걸어 두고 사용하도록 하자.

(5) 우물 가까이에서는 세탁을 비롯한 일체 씻는 일을 금해야 한다.

림영환 그림